

최저임금·금리인상·환율하락 中企 ‘新삼중고’

올초 대비 환차손 10% '수출 비상'
은행 대출이자에 인건비 격정까지
뾰족한 대책 없이 '마른수건 짜기'

“올해 초 환율이 1200원을 웃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10% 정도 환차손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계약 단가를 올릴 수도 없고 당장 저자 신세를 면치 못할 형편이죠.”

서울에 있는 한 중장비 업체의 A 대표는 최근 이어지는 대외 악재 폭탄에 좌불안석이다. 그렇지 않아도 환율 하락으로 영업이익은 줄어들 게 뻔한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오자 은행 대출이자에는 또 얼마나 더 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선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내년엔 최저임금까지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를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비단 A 대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월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최근 '환율 하락', '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신(新)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4원 오르기 했지만 1088.2원에 마감했다.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100원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환율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변동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 조정이 불가피해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중소기업 사이에선 벌써부터 채무상환 부담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계약이 60%를 초과해 중소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환율 하락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원화 강세를 더 부추겨 수출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6.4%까지 오르면 함께 소상공인은 줄줄이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비교적 탄탄한 중소기업 대표들 역시 높이는 인건비 부담에 내년도 사업 확장이나 설비투자까지 연기 또는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 현장 분위기다.

문제는 ‘허리띠 졸라매기식 원가 절감’이나 품질 경쟁력 향상, 수출선 다변화 등 장기적 대책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환해지 등 재무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2007년 말 키코(KIKO) 사태의 트라우마로 현재 환해지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한 편의 영화같은 企業 ‘세상 바꾸기’... 오늘도 ‘액션!’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대외위원회가 주최하고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코스리가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이 3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기업, 사회경제 및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상을 공유해 활동을 격려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의 확산을 꾀한다. 이현재(뒷줄 오른쪽 네 번째) 대회위원장, 김상우(뒷줄 오른쪽 세 번째) 이투데이 부회장, 김정우(뒷줄 오른쪽 두 번째) 이투데이 총괄대표, 이종재(뒷줄 맨 오른쪽) 코스리 대표 등 주요 내빈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올해로 6회째인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책임(CSR) 축제인 '2017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이 3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관련기사 4·5면

이날 행사에는 김정우 이투데이 총괄 대표와 이종재 코스리 대표를 비롯해 이현재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대회위원장(전 경제부총리),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6번째 CSR 축제, 출품작 187개로 역대 최대... 총리상에 'GS칼텍스'

이현재 대회위원장은 “사회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숙제”라며 “사회 가치 제고 작업의 다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올해 CSR 필름페스티벌에는 109개 기업과 기관에서 총 187개의 작품이 출품돼 역대 최대 기업과 작품 수를

기록했다. 출품작은 2012년 75개로 시작해 2015년 137개, 2016년 151개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심사 결과 15개 부문 15개 기업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인 ‘함께하는 사회’ 부문에는 GS칼텍스가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인 ‘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은 이마트, IT교육 부문은 삼성전자 인도

총괄 등이 수상했다. 현장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올해의 필름상에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뽑혔다.

홍일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한 노력은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것과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적응을 돕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CSR의 한 내용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동참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30일(현지시간) 산타 클로스 복장을 한 남성이 클로징 벨이 울리기 전에 등장해 화제에 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날 다우지수는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2만4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다. 뉴욕/AFP연합뉴스

‘슈퍼산타’ 온 다우지수, 2만4000선 돌파

美 세계개척안 기대감... 전일보다 1.39% 오르며 120년만에 사상 최고치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4000선을 돌파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계개척안이 기대감을 높인 영향이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39%(331.67포인트) 오른 2만4272.35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2만40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1000년위로 된 건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다우지수는 작년 미국 대선 이후 약 6000포인트 올랐다. S&P500지수도 전일 대비 0.82%(21.51포인트) 상승한 2647.58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0.73%(49.63포인트) 오른 6873.9에 장을 마감했다.

탄탄한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 호조가 기록적인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특

히,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계개척안이 속도를 낸 게 결정적이었다.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는 공화당 지도부가 제시한 세계개척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거물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상원이 제시한 세계개척안을 지지한다고 이날 밝혀 감세에 청신호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해온 인물이다.

법인세가 대폭 인하되면 상장사의 수익성이 직접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톨볼 수석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지금을 황금시대로 평가한다”며 “경제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신호가 없는 한 투자자들은 경제장 전망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부동산 시장 ‘현금富者 리그’ 되나

기준금리 인상되며 대출 압박... 시장 위축 우려
집값 떨어져도 이자부담 실수요자는 ‘그림의 떡’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대출을 이용한 거래 비중이 높은 부동산 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가뜰이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 상환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통상 금리 인상은 대출받아 부동산 거래를 한 차주의 이자 부담을 높여 한

계가구를 양산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평균 이자 비용은 308만 원에서 168만 원 늘어난 476만 원이 되고, 한계가구는 803만 원에서 1135만 원으로 332만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미 상환 능력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큰 한계가구는 32만 가구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금대물이 나오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부는 신DTI와 DSR 등을 도입, 신규 대출 규제를 늘리고 있다. 이는 신혼부부 등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구매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금리는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자기자본이 없는 주택 수요자는 그만큼 구매 여력이 줄어든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어도 여력 없는 실수요자는 사지 못하고 현금

부자들이 이를 쓸어 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IMF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리 인상에 따라 금대물이 나오면 현금 부자들이 이를 매수해 가는 흐름이 있었다”며 “이런 학습효과가 있는 현금 부자들로서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길 바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IMF 당시 부자들의 이런 행태는 ‘이사 줄기란 말로 통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韓·中·日 ‘가상화폐 규제안’ 머리 맞댄다

3국 금융당국 회의서 첫 논의... 가계부채 증가·규제개혁 등도 공조

한국과 중국, 일본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인천 송도에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일본 금융청(JFSA)과 함께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가상화폐 대응, 금융규제 개혁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을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의 금융법 금융위 부위원장과 중국의 왕 자오싱 은감위 부주석, 일본의 히미노 료조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 등 3개국 금융당국 부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중일 3국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변별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공통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3국 고유의 경험과 정책 대응은 비단 한중일 3국뿐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한국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금융그룹 통합 감독, 가상화폐 등의 주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중국, 일본 당국과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왕 자오싱 중국 은감위 부주석은 금융위기가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로 자본시장의 발달과 엄격한 규제기관 간 협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국가 간 공조와 의견 교류의 필요성을 꼽았다.

히미노 료조 일본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은 최근 금융청의 감독체계 변화와 그 배경을 설명하고, 고령화 저금리, 금융분야 혁신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했다. 일본 금융청은 검사·감독 기능의 통합을 통해 검사국을 폐지하고 종합기획 기능을 확대해 시장 질서 확립, 핀테크 발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신혼부부 희망타운’ 가보니
“20년간 이사 생각이 싹~”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올겨울 ‘國代’ 기분 내볼까... 스키장 빅4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토요일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뉴스는 계속

5G·자율주행... '첨단기술 知能化' 큰 그림

실질GDP 1.5% '깜짝 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로드맵 윤곽

2022년까지 부처별 12개 분야 '사람 중심 혁신 목표' 제시
지능화 기술 R&D에 2.2조 투자, 핵심인재 4.6만 명 양성
자율주행차 도로 달리고 산업용 드론 시장 규모 20배 확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진행할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의 로드맵이 나왔다. 2022년까지 각 부처별로 의료와 제조, 금융·물류, 농수산업, 교통, 에너지, 환경 등 12개 분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첨단 기술을 접목해 '지능화하겠다'는 큰 그림이다.

이 같은 청사진이 실현되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5G)가 상용화되고 2020년이면 돌발 상황 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 또 2022년에는 자율주행 선박이 운항하고 산업용 드론 시장은 지금보다 20배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신규 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신규 일자리만 36만6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테크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확

정·발표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첫 청사진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위원회 내부에서 '큰 그림 1.0'이라고 부르고 있고 앞으로 2.0, 3.0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화 기술 R&D에 2022년까지 총 2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을 2019년 3월까지 상용화하고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친화적 방향으로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중소·벤처의 성장동력 촉진 차원에서 2022년까지 '혁신모험펀드'를 1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분야별 4차 산업혁명 유망 품목들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해 그 비율을 2016년 12%에서 2022년 15%로 높여기로 했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능화 R&D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주요 내용

제조	스마트공장 고도화·확산	이동체	자율주행차 시장 선도	금융·물류	핀테크 활성화
생산 자동화·최적화 제조업 생산성 제고	2022년 최적화 단계	자율차 집중 육성, 2020년 고속도로 준자율차 상용화 지원	2020년 고속도로 준자율차 상용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시장 2배 확대	2017년: 208개 업체 2022년: 400개 업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80개 지자체 확산 추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80개 지자체 확산 추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스마트도로 구축 35% 달성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스마트도로 구축 35% 달성	간병간호·신체활동 지원 돌보미 로봇, 신체활동 지원 로봇	간병간호·신체활동 지원 돌보미 로봇, 신체활동 지원 로봇

신규 매출 증대	24.1 (단위: 조 원)	→ (2022년 기준) 최대 128조 원 경제효과 발생
비용 절감	55.4	
소비자 후생 증가	48.6	

핵심 인재 4만6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전직교육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의료의 경우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신약 개발 주가·비용 단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평균 건강수명이 3세 연장되고 보건산업 수출액은 30% 늘린다는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병·간호 지원 로봇을 도입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도 개발한다.

시티 분야에서는 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 시제품 뉴딜을 추진하고, 제조 분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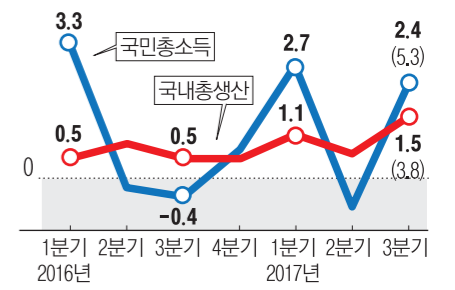
서는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제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신호등 확산과 사고 위험 예측 고도화를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10%, 교통사고를 5% 각각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준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며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현재의 20배로 늘리는 것이 각각 목표로 제시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핀테크 시장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속보치보다 0.1%P↑ 7년 만에 최고
3분기 국민총소득 2.4% '증가 전환'

국내총생산·국민총소득 성장률 추이
(단위: %,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속보치를 웃돌았다. 우리 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민총소득(GNI)도 1분기 만에 플러스로 반전했다. 총합적인 물가 상승세를 엿볼 수 있는 GDP디플레이터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저축률이 다시 오르고 투자율은 감소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완연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기엔 다소 이른감이 있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실질GDP는 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를 기록했다. 각각 29분기와 13분기만의 최고치다. 속보치보다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설비투자가 기계류를 중심으로 늘어 전기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속보치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10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성형 등 의료 등에 따른 민간소비와 이로 인한 정부의 건강보험급여비 등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기 대비 2.4% 증가했다. 2분기 0.6% 감소에서 증

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가격 하락 폭이 수입가격 하락폭보다 적어 교역조건이 개선된 데다 배당금 지급이 감소하면서 국외순추요소소득도 2분기 마이너스(-)1조9000억 원에서 3분기 1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2009년 3분기 3.7% 이후 32분기만의 최고치다.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상승이 높아 GDP디플레이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김영태 한은 국민경제부장은 "3분기 성장은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고 있는 데다 민간과 정부 소비가 늘면서 속보치보다 올랐다"며 "GNI도 높아 향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수출도 順航...13개월 연속 증가세

11월 수출 497억 달러 9.6% 올라...반도체 호조에 기계도 신기록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두 달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도체 수출은 11월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이 49억 7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9.6% 증가한 수치로 1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또 11월 수출 중 역대 최고 실적이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9월까지 9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10월에 이어 11월에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하루 평균 수출은 20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수입은 418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3%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78억 4000만 달러로 7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11월까지 누계 수출은 5248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을 포함한 무역역은 11월 까지 9594억 달러였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우리 무역은 2014년 이후 3년 만에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13대 품목 중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 기계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고 이중 반도체 등 5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95억 7000만 달러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는데, 11월까지 누계로는 883억 달러로 역대 1위 기록이다. 아울러 일반기계(46억 5000만 달러), SSD(5억 4000만 달러), MCP(2억 1100만 달러)는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지역별 수출은 중국 수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대(對)중국 수출은 140억 2000만 달러(20.5%)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고 아세안은 82억 8000만 달러(13.4%)로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늘었다. 광도훈 기자 sogood@

10대 그룹 총수들, 지분을 줄였지만 掌握力은 커졌다

역대 최저 0.9%...계열사 지분 늘리며 내부 지분율 0.7%P↑

10대 그룹 총수들이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장악력을 더욱 높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올해 58.3%로 지난해 57.6%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내부 지분율은 대기업 집단의 전체 지분 중 총수 일가·임원·계열사 등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을 의미하며, 통상 내부 지분율이 높을수록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도 강해진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총수 지분율 감소(1998년 2.9%→2017년 0.9%)에 비해 계열회사 지분율 증가(37.9%→55.5%)가 훨씬 커 내부 지분율까지 대폭 증가(45.1%→58.3%)했다.

반면 총수의 지분율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저인 0.9%(총수 일가 2.5%)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1% 미만으로 감소했다. 1998년 2.9%였던 총수 지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배력은 더욱 강해지는 셈이다.

총수 일가 지분이 1% 미만인 대기

업은 SK(0.32%), 금호아시아나(0.33%), 현대중공업(0.89%), 하림(0.90%), 삼성(0.99%) 등이다.

그룹 총수들은 자체 지분을 하락 문제를 계열사끼리의 지분 보유로 해소하고 있다. 조사 대상 그룹 가운데 총수가 있는 49개 대기업의 평균 내부 지분율은 58%에 이른다. 1년 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58% 가운데 계열사 지분율이 50.9%포인트다.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그룹을 보면 넥슨(93.1%), 호반건설(81.8%), 롯데(79.9%) 순이다.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30개 집단의 94개사(5.3%)였

다. 중흥건설이 27개사로 가장 많았고, GS·효성·SM·호반건설이 6개사였다.

또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과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비교하니, 총수가 있는 집단의 지배구조가 더 복잡하고 출자 단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49개)은 수평·방사형 출자로 얽힌 경우가 많았고, 평균 출자 단계가 4.2단계, 평균 계열사 수가 36.4개에 달했다. 반면 총수 없는 집단(8개)은 수직적 출자가 많아 출자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평균 출자단계는 2.6단계, 평균 계열회사 수는 24.8개에 머물렀다.

박엘리 기자 el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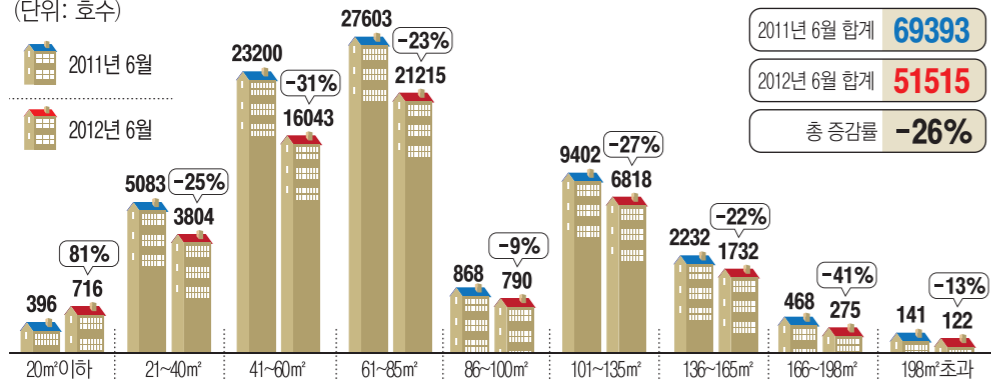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농업,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힘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부동산 시장 '금리인상 쇼크'

6년 전 기준금리 인상 당시 1년간 아파트거래 추이



<2011년 6월 금리, 3.0%→3.25% 인상>

6년 전 아파트 거래 살펴보니 1년만에 매매 물량 26% 감소

금리 올리기 부동산 소비심리는 급감 20㎡ 이하 소형 거래만 80% 늘었고 그 외엔 모두 줄어 아파트 시장 급락 166-198㎡ 규모는 40% 이상 '뚝'

6년여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아파트 거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이 금리 부담을 느껴 거래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2011년 기준금리가 올랐을 당시 아파트 거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기준으로 2012년 6월 아파트거래는 5만1515건으로 전년 동월(6만9393건)보다 26% 감소했다. 2011년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인상한 이후 1년간 발생한 수치다.

규모별로 봤을 때 이 기간 20㎡이하(81%)를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거래가 줄었다. 가장 감소율이 높은 구간은 166-198㎡, 41-60㎡였다. 166-198㎡ 구간 거래건수는 468건에서 275건으로 40% 이상 감소했고, 41-60㎡ 구간은 31%인 2만3200건→1만6043건 줄었다.

이외에 △21-40㎡ 25%↓ △61-85㎡ 23%↓ △86-100㎡ 9%↓ △101-135㎡ 27%↓ △136-165㎡ 22%↓ △198㎡초과 13%↓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2011년 한 해 동안 세 차례(1·3·6월)에 걸쳐 2%대였던 기준금리를 3%대 중반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대출금리도 덩달아 올랐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주택담보대출금리에 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추이를 보면 2011년 6월 4.87% 수준에서 연말에 5%대로 급상승했다.

당시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 소비심리도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 이 산출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2011년 7월 125.5에서 2012년 6월 99로 급락했다. 이 지수는 0-200의 값으로 집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등 긍정적 분위기를,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기준금리가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승기로 접어들 경우 이 같은 지표 부진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 공급과잉 정책이 잇따라 발표된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거래 심리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의존도가 높아 중 소형 아파트에도 수요 위축이 생길 수 있다"며 "가뜩이나 공급과잉과 대출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입주물량 과다지역 주택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추가 인상 시기' 반으로 갈린 전문가들

내년 '상반기 vs 하반기' 의견 팽팽 韓銀총재 교체·6월 지방선거 등 변수 국제경제·지정학적 리스크도 고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팽팽히 갈렸다.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보는 입장은 호조세를 보이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반면 하반기로 보는 쪽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결정에 있어 소수의견을 내놓은 데다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신중하다는 표현을 새롭게 삽입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에 무게를 뒀다. 또 내년 3월 말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점,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았다.

1일 이투데이가 금융위 직후 나온 보고서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전문가 24명 중 11명은 내년 상반기, 11명은 내년 하반기를 각각 추가 금리인상 시기로 꼽았다. 명시적으로 금리인상 시기를 밝히지 않은 전문가는 2명이었다. 이중 내년 1분기(1-2월)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은 4명을 기록했다. 다만 내년 금리인상이 1회 내지 2회에 그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내년 하반기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융위에서 조동철 위원이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데다 이 총재 기자회견도 비둘기(완화)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추가 금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6년 5개월만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저금리에 익숙해진 가계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글로벌 흐름은 완화기조 축소"라고 밝혔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인상에 대한 시그널도 명확치 않았다고 봤다.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금리정책 방향을 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잡았지만 경기 및 물가 요인 외에도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며 "단기간 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말로 끝나는 총재 교체 이벤트도 금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신임 총재 취임 후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호조가 지속되면서 내년 1분기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내년 2분기를 보는 입장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표면적인 통화 실제 액션이 없었던 경우가 많다. 말보다 펀더멘털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완화 정도의 축소와 정책금리 정상화에 방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2번째 인상까지 6개월 이상 쉬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2분기 내지 3분기 인상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5월 내지 7월 인상을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대출금리 인상·공급과잉 二重苦 오피스텔·상가 투자자 '깊은 한숨'

투자수익률 감소 시장 위축 불가피 '내년 初부터 高價 물건 위주로 타격'

한은의 금리인상은 대표적인 레버리지 상품인 오피스텔과 상가 시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다만 시장이 금리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만큼 그 타격은 중장기적인 침체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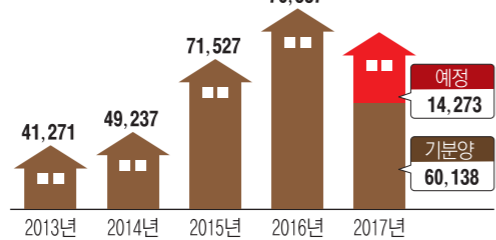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리인상이 없었던 지난 6년간 대출금리에 민감한 수익형부동산 시장인 오피스텔과 상가 시장은 호조세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연이은 규제 발표로 인해 규제의 무풍지대였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투자 가치가 주목받은 영향도 있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금리인상이 있었던 2011년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3만7709실이었다. 이후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만여 실을 넘나들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5년 7만1527실, 2016년 7만6837실을 분양하고 올해는 연말까지 7만4411실의 분양이 예상되는 등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상가와 오피스, 오피스텔을 모두 포함한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시장 크기도 매년 큰 성장세를 보여왔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15만5582건을 기록해 이전 몇 년간 10만 중반대의 거래량을 보이던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 올해는 처음으로 30만 건을 넘어서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투자수익률을 직접적으로 감소

오피스텔 분양 물량 추이 (단위: 실)



시키는 금리상승이 오피스텔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다만 기존의 초저금리에서 크게 오른 것이 아니다 보니 당장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앞으로의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우려가 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역시 "시중금리와 비교우위를 통해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상 수요의 감소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대지 지분이 많지 않고 단순히 임대소득만을 추구하는 구분상가나 오피스텔의 약영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상가 시장 역시 한동안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올라 갈거란 예상을 하고 있었다 해도 상승의 충격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며 "기준금리가 대출금리로 적용되는 내년 초부터 고가의 물건 위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KB 금융그룹

KB손해보험과 함께 하면 희망이 **쫓쫓**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하게 다리 쫓쫓고 살 수 있도록 당신 곁에 당신의 보험, KB손해보험이 지켜드릴게요!

무배당 KB The드림 365 건강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5222호(2017.10.16)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www.kbsure.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 **KB손해보험**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해요”... 콜센터 언어폭력 STOP

수상작 살펴보니...

GS칼텍스 '마음어음 연결음' 국무총리상
한수원, 방범 취약지역에 '안심 가로등' 사업
하나금융, 외화동전 모아 어린이 수술 지원
루미르, 개발도상국에 열전발전램프 공급
현대카드, 광주송정역시장 지키기 프로젝트

'2017 CSR 필름페스티벌'은 30일 총 187개 작품 중 1차 심사를 통해 35개작을 선정한 뒤 2차 심사를 통해 15개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뽑았다.

국무총리상인 '함께하는 사회' 부문에는 GS칼텍스가 선정됐다. GS칼텍스는 '마음어음 연결음'을 통해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감정노동 문제를 색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통화 연결음에 상담원도 누군가의 가족임을 인지시켜 주는 내용을 넣어 사회에 따뜻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마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인 '더불어사는 사회' 부문을 수상했다. 이마트는 '이마트 옐로카펫' 활동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었다. 학부모와 이마트 주부봉사단, 임직원 등이 모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만들어 지역 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삼성전자 인도총괄은 IT교육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아이들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을 교육으로 보고 인도 전 지역의 나보다야 국립학교에 스마트클래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밝은사회 부문을 수상했다. 한수원은 전국의 방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안심 가로등 사업을 통해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태양광 안심 가로등은 1분당 연간 57.6MWh 전기절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따뜻한 기술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재질재질 스크램블' 영상에 청각장애 어린이들이 통학시 '스케치북 원도'를 통해 다른 좌석의 친구와 소통하고 부모님께 손 글씨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담았다. 이 특별한 자동차 유리는 입사 3년 차 연구원 동기 5명이 만든 제품으로 기술이 아닌 '사랑'에서 시작한 아이디어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외화동전 모아 새 생명 살리기', '공유로 이루어낸 원기의 꿈' 필름을 통해 기부문화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외화동전 모아 새 생명 살리기'는 KEB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서 고객들이 환전하고 남은 동전을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하여 새 생명을 주는 과정을 담았다. '공유로 이루어낸 원기의 꿈'에서는 국내 유일 소아조로증 환자인 원기의 이야기를 다뤘다. 원기는 하나금융그룹과 소셜기부플랫폼 웨어엔지니어가 공동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스파이더 맨을 만나고 콜롬비아 친구 미구엘을 초대할 수 있었다.



이현재 2017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대외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photo@

2017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수상작

번호	상호처	수상부문	기업 및 기관명	영상제목
1	국무총리상	함께하는 사회 부문	GS칼텍스	GS칼텍스 마음어음 연결음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더불어사는 사회 부문	이마트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이마트 옐로카펫]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IT교육 부문	삼성전자 인도총괄	삼성 Tech Institute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밝은 사회 부문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안심가로등 아베'
5	행정안전부 장관상	따뜻한 기술 부문	현대자동차그룹	H-점프스쿨과 함께 찾아가는 '꿈의 지도'
6	보건복지부 장관상	기부문화 부문	하나금융그룹	'공유로 이루어낸 원기의 꿈'
7	보건복지부 장관상	기술나눔 부문	SK주식회사	행복한 소리Dream - 행소하세요
8	보건복지부 장관상	행복나눔 부문	우체국공익재단	소원을 배달합니다. 행복을 배달합니다.
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건강한 사회 부문	한국에자이	쉽표합창단 MV(나우프로젝트)
1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희망나눔 부문	이베이코리아	HERE HERO - 강원 소방
1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따뜻한 사회 부문	루미르	LIGHT UP THE WORLD
1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상생협력 부문	현대카드	1913송정역시장 '지키기 위한 변화'
13	코이카 이사장상	글로벌사회혁신 부문	트리플래닛	Make your farm in Nepal
14	코이카 이사장상	글로벌 나눔 부문	밀알복지재단	라이팅말라위
15	대한민국CSR필름페스티벌 대외위원장상	재능 나눔 부문	두루	공익변호사단체 '두루가 바꾸어가는 세상'

을 담았다. '공유로 이루어낸 원기의 꿈'에서는 국내 유일 소아조로증 환자인 원기의 이야기를 다뤘다. 원기는 하나금융그룹과 소셜기부플랫폼 웨어엔지니어가 공동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스파이더 맨을 만나고 콜롬비아 친구 미구엘을 초대할 수 있었다.

SK주식회사의 '행복한 소리Dream(드림)-행소하세요'는 기술나눔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행복한 소리Dream'은 AUD사회적협동조합과 SK주식회사가 공동으로 SK주식회사의 한국어 인공지능 '에이브릴(AIBRIL)'을 활용, 청각장애 어린이에게 소리를 눈으로 보여주는 인공지능 문자통역 서비스를.

우체국공익재단은 '소원을 배달합니다. 행복을 배달합니다'로 행복나눔 부문에서 수상했다. 우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 전 등록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박필규 CSR팀장이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젝트 종료 후에도 라디오와 TV에 출연하고 강연회에 초청되는 등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희망나눔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베이코리아는 'HERE HERO-강원 소방'을 출품했다. 제철작업에 지쳐 출동 전 이미 지쳐 버리는 강원도의 소방관들의 고충을 담았다. 이베이코리아는 이들에게 제철기와 신발건조기를 전달하며 출동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따뜻한 사회 부문은 루미르의 'LIGHT UP THE WORLD'가 선정됐다. 루미르는 전기가 부족한 곳에 살고 있는 전 세계 13억 명에게 빛이 되고자 한다. 현대 많은 개발도상국 주민들은 밤이 되면 촛불과 등유램프에 의존한 채 생활 중이다. 루미르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고효율 열전발전램프 '루미르k'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영상은 개발도상국 비전력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가장 부합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인도네시아에서 현지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루미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루미르는 현지 주민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150가구를 대상으로 2차례의 현지 테스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대카드의 상생협력 부문에서 수상했다. 현대카드가 진행한 1913 송정역시장 '지키기 위한 변화' 프로젝트는 재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부활에 성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 사례다. 1913 송정역시장의 지속가능한 자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지키기 위한 변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현대카드의 활성화 프로젝트 이후 1913송정역시장은 하루 평균 4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이는 기존 대비 20배나 증가한 수치다. 현대카드의 CSR 활동으로 현재는 전통시장

의 변화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사회혁신 부문에는 트리플래닛의 'Make your farm in Nepal'이 뽑혔다. 2015년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네팔에 트리플래닛은 산사태를 막아줄 커피나무 농장을 세웠다.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성된 네팔 커피나무 농장은 농가에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주고, 자연환경엔 회복의 기회를, 펀딩 참여자에게는 신선한 커피를 제공한다. 커피농장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는 커피 한 잔을 위해 직접 커피나무를 심은 농장주가 됐다는 재미와 보람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 농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터전을 선물받게 됐다.

밀알복지재단은 '라이팅말라위'를 출품해 글로벌 나눔 부문의 상을 받았다. 밀알복지재단의 '라이팅말라위(Lighting Children)'은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에 후원자가 직접 조립한 태양광 랜턴을 보내주는 친환경 에너지 나눔 캠페인이다. 아프리카에 '어둠'은 이미 생활 깊숙이 뿌리내려 일상의 불편함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밀알복지재단은 현지 취재를 통해 말라위 은코마 마을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라이팅말라위'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리의 관심과 나눔이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에 관한 따뜻한 기적의 이야기가 영성에 담겨 있다.

재능나눔 부문에는 '두루가 바꾸어가는 세상'을 제출한 두루가 선정됐다. 공익변호사단체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2014년에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두루에서는 현재 6명의 공익변호사가 일하고 있으며 장애인 아동청소년인권 사회경제적 국제인권 등 4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두루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단체다. 이 영상은 두루의 여섯 명의 변호사가 직접 만들어 가는 이야기로, 화면 영상부터 내레이션까지 모든 부분에 참여했다. 두루 측은 "모두가 두루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의 활동이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투표를 통해서 선정하는 올해의 필름상에는 스포셜올림픽코리아가 뽑혔다. 스포츠를 통해 지적발달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기여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스포셜올림픽코리아는 발달장애인의 체육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는 출품한 영상에 발달장애인이 직접 전하는 2017년 2월 오스트리아 스포셜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65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 및 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계 유일의 발달장애인 국제 문화축제를 만들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고대영 기자 kodae0@
이민호 기자 minor3032@

후원문의 1588-1940
www.childfund.or.kr



장난감은 늘었지만 친구들은 줄었습니다



문자는 늘었지만 소통은 줄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은 늘고 감사하다는 마음은 줄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이 줄어든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밝은 인성이 자랍니다



‘相生과 나눔’ 180초 感動 드라마... 모두 눈을 떼지 못했다

187개 작품 중 15개 수상작 선정
우수 후보작 상영 현장투표 진행
중 CSR 영상·트렌드 공유시간도

“생생한 사례발표 한층 다채로워져...
CSR의 의미 되새긴 소중한 시간”
수상작 美·中 필름페스티벌 상영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할 예정입니다.”
어린 딸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웅성거
리던 행사장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올해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GS칼
텍스의 ‘마음이음 연결음의 첫 장면이다. 고객
센터 직원들과 한 번쯤 언쟁을 벌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 관객들은 좀처럼 눈을 떼지 못
한다. 고객과 상담원이 연결되는 첫 지점인 통
화 연결음에 폭언을 차단할 수 있는 문구를 넣
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미처 보살피지 못했던
이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이어지는 180초
짧은 영상 속에는 소외된 이웃과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따스한 향기를
남겼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
서 ‘2017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이 진행됐
다. 이 축제는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대회
위원회,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
고 이투데이, 코스리(한국SR전략연구소)가 주
관했다.
올해 행사는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해 1:2차
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예년과 다르게



3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수상작 하이라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foto@

우수 후보작 40개 영상을 현장에서 상영해 직접
현장 투표를 진행.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영상
에 ‘올해의 필름상’을 수여했다.
1부에서는 GS칼텍스, 하나금융그룹, 밀알복
지재단 등이 출품한 영상이 연이어 상연된 가운
데 각 기업은 사회적 공헌, 나눔 활동 등을 기업만
의 가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시상식
뿐 수상작 중 △GS칼텍스 △이베이코리아 △트
리플래닛 3개 기업이 대표로 각 사의 사회적 책
임 활동을 소개했다.
콘텐츠 관련 사회적 기업인 더블베이스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정진(21) 씨는 “평소 영상 콘
텐츠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행사에
참가했다”며 “영상을 통해 CSR 활동 등으로 다
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여가 가능함을 느꼈다”
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이 보여주기로 활동들
을 나열하는 것과 다르게 기업의 역량과 재능
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활동이 진행됐다는 평가
다. 김영기 CSR 필름페스티벌 심사위원장은 “올
해는 기존과 달리 기업들이 한발 더 나아가 사
회적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며 “올해가 기업의
CSR 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부는 신타오의 루비 Lv(Ruby Lv) 마케팅 디
렉터가 중국의 CSR 영상과 트렌드에 대해 공유
했고, SR교육지도사 자격증 수여식과 올해의
필름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의 필름상은 올
해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스페셜올림픽에 출
전한 박정현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팀의 영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

다. 수상자로 호명된 순간 해당 팀은 대강당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지르며 무대 위에 올라 기
념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병규 현대제철 차장은 “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언론사 주관의 CSR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
들에게 다시금 CSR의 의미를 환기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생생한 사례발표 형식으
로 진행돼 행사가 한층 다채로웠으며 참여한 기
업들이 서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작품은 각종 SNS 채널과 영문,
중문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공유하고
수상작은 미국과 중국 CSR 필름페스티벌에 상
영된다.
정유현 기자 yhssoo @안경무 기자 noglasses@

심사평 김영기 심사위원장

기업, 역량·재능 바탕 ‘창의적 활동’ 돋보여 CSR 패러다임 전환

“기존에는 출품 영
상이 사회공헌 사
업을 보여주기로
나열하는 차원이
있다면,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문
제를 더 심도있게 고
민하고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올해
가 CSR 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발점
이 될 것입니다.”
김영기(가좌) CSR 필름페스티벌 심사위원
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사학연금회관 대
강당에서 열린 ‘2017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열린 환영사를 통해 올해 행사의 심사평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주요 기업의 경우 기업
의 재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회적 활동
을 진행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능력과 기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
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꼽은 올해 행사의 특성은 기
업들이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사
회 경제적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그
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계속해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꾸준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의 이러한 변화는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
되는 CSR 필름 페스티벌에 기업의 영상을
출품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그는 “미
국과 중국의 CSR 필름페스티벌과 교류를 강
화하는 등 출품 기업의 활동과 취지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회 위원회는
공정한 진행과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더 고
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지적발달장애 선수 빛나는 투혼’에 박수갈채... 현장투표 1등

올해의 필름상 스페셜올림픽코리아
‘2017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의 마지막
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장식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스페셜
올림픽코리아의 ‘2017 오스트리아 스페셜올림
픽 세계동계대회: 선수들의 눈으로 바라본 열전
의 기록’이 최다 득표로 올해의 필름상을 수상
했다. 해당 영상은 올해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스페셜올림픽에 출전한 박정현 선수에 관한 이
야기다.
수상 직후 만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이지
희 문화예술 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스페셜

올림픽을 위해 도와주고 있지만 조금 더 올림픽
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었
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에 가족 및
특수학교 등과 연계해 스페셜올림픽을 알리고
있다”며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
한 모습도 있지만 스페셜올림픽을 위해 천천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올림픽은 패럴림픽과는 또 다른 영역
의 대회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스페
셜올림픽에 나서고 있다. 이번 영상 역시 올해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스페셜올림픽을 배경
으로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영상 내레이션에 박정현 선수
가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지능
은 다소 낮을지 몰라도 일상에서 남들과 다름없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들”이라며 “어눌하지
만 박 선수가 내레이션을 직접 함으로써 자신의
일에 감사해 하고 국가대표로도 활약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스포츠뿐 아니
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범위에서 활동을 이어
고 있다. 여름에 진행되는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에는 36개국에서 참여하고 여러 재능
기부를 통해 진행돼 오고 있다. 내년엔 좀 더 특
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종재(오른쪽) 코스리 대표가 올해의 필름상 수상
작 ‘스페셜올림픽코리아’팀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
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현대백화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 천호점 · 킨텍스점 · 울산점 · 판교점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H by H

유러피안 감성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Kitchen & Tableware | Home Deco | Bath & Fragrance | Fabric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海外자원개발 혁신TF

산업부, 광물자원공사 부실 키운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
향후 이권 개입 우려에 “이해상충시 직무회피 의무 서약” 해명

정부가 자원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사업 감증을 위해 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해 이권을 쥔 겹거나 공정성·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달 29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앞서 산업부는 이번 TF는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원장과 정부 관계자 2명,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고 공식화했다.

하지만 위원 면면을 보면 자원개발 이권에 개입했던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TF의 회계 부문 위원인 류기홍 대주회계법인 이사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광물자원공사의 꼬로꼬로 동광개발사업 프로젝트 추진 당시 사업비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광물자원공사 내 리스크관리 위원회 외부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류 이사는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광물자원공사 볼리비아 꼬로꼬로 프로젝트의 사업비 회계감사를 대주회계법인에서 수행한 것은 맞지만 독립적으로 한

것이지, 독립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볼리비아의 꼬로꼬로 동광 합작계약은 볼리비아 측의 사업계약 해지로 투자비 110억 원을 날린 사업이다.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경에 완결해야 하는 탐사를 3차례나 미루자 볼리비아 정부가 계약불이행에 따른 퇴출을 최종 통보했고, 투자가 행보증권 6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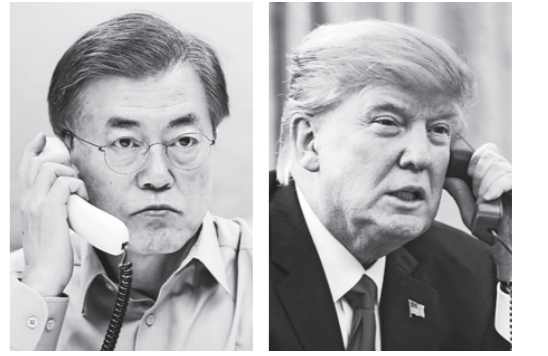
또 다른 위원인 배흥기 삼정KPMG회계법인 부대표의 경우 몸담고 있는 삼정KPMG에서 광물자원공사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현재 이 사업은 매년 적자를 기록해 2015년에는 약 3조3093억4300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해외자원개발협회의 경우 부실사업 감증을 통한 향후 자원개발 이권에 개입할 우려가 있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도 있다. 한 자원개발 전문가는 “특정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실적이 아닌 미래 추정치로 장밋빛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 법인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TF 위원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기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 자격으로 TF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들은 이해상충시 직무회피 의무, 사적 정보활용 금지, 청탁·알선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개별 부실 사업별로 처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TF 구성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면서 “다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당시 잘못된 의사결정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만 관련자 문제 등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韓·美 정상, 이틀 연속 전화통화
文 “北 ICBM 재진입·소형화 미지수”
미국은 ‘해상 봉쇄’ 군사옵션 만지작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신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호’ 발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의 사태 심각성과 두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은 어제 정부성명을 통해 ICBM 개발이 완결 단계에 도달했고, 핵 무력 완성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다. 재진입과 중발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화에서 양 정장은 북한이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 위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한·미가 동맹국으로서 긴밀한 공조하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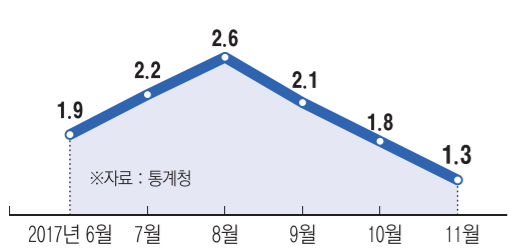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우리가 적극 추진 중인 미국산 첨단 군사장비 구매 등을 통해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의 굳건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고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공식화해 시 주석을 공개 압박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뿐만 아니라 해상봉쇄 카드라는 군사옵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미국의 북한 해상봉쇄 조치가 들어갔을 때 자칫 군사 충돌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단위 : %, 전년 동월 대비)



11월 소비자물가 1.3%↑ ‘연중 최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나타냈다. 가스요금 인하와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을 둔화가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1.3% 오른 이래 올해 최저치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1.9~2.2% 사이에서 상승률을 보였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석 달 연속 2%대를 지속한 바 있다. 10월 1.8%로 연중 최저치를 찍은 후 지난달에 이를 다시 경신했다.

11월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했다. 채소류는 1년 전보다 14.6%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내렸다.

출하량이 증가한 배추와 무는 30% 넘게 떨어지며 가장 물가 안정시켰다. 반면 오징어는 47.1%, 고춧가루는 36.5% 급등했다.

전기·수도·가스는 1년 전보다 6.7% 내려가면서 전체 물가를 0.28%포인트 떨어뜨렸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와 지난해 한시적 전기료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도시가스는 4.0%, 전기료는 11.6% 떨어졌다. 지역난방비는 2.3% 빠졌고, 상수도료는 1.3% 올랐다.

반면 집세(1.4%)와 공공서비스(0.8%) 등 서비스 물가가 1년 전보다 1.8%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1.02%p 끌어올렸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미FTA 개정 2차 공청회·구호 외치는 농민들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장 앞에서 열린 ‘한미 FTA 폐기, 개정협상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일이나 9일이나’ 예산안 처리 갈림길 여야 3당, 오늘 오후 ‘2+2+2 회동’ 갖고 최종 합의 시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1차 시한(11월 30일)은 이미 넘겨 버렸다. 법정 시한(2일) 내 타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통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YTN 라디오에서 전날 여야 예산안 합의와 향후 전망과 관련해 “어제 늦은 시간까지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법정 시한 준수를 담담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예산안 통과’ 전망에 대해 “그런 언급을 직접 한 적은 없다”면서도 “아무리 늦어도 9일까지는 (예산안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법정 시한 전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며 “여당이 (야당에) 관용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부터 밤 10시까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의 동의를 얻어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2일 정점으로 하루 미뤘다. 자동 부의 시점을 늦춰 여야 합의를 어떻게든 이뤄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금 3조 원 지원’ ‘법안·소득세 인상’ 등 정부 예산안 핵심 3대 쟁점 원안을 고수하면서 야당과 합의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막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회의 도중 퇴장해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신경전이 더해져 논의는 전날까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TAX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자문을 무료로 유양씨열 등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의 일상을 넘어
내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내일
백신과 신약으로 더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는 내일
새로운 에너지로 더 풍요로운 세상을 이루는 내일
공간의 가치를 창조하여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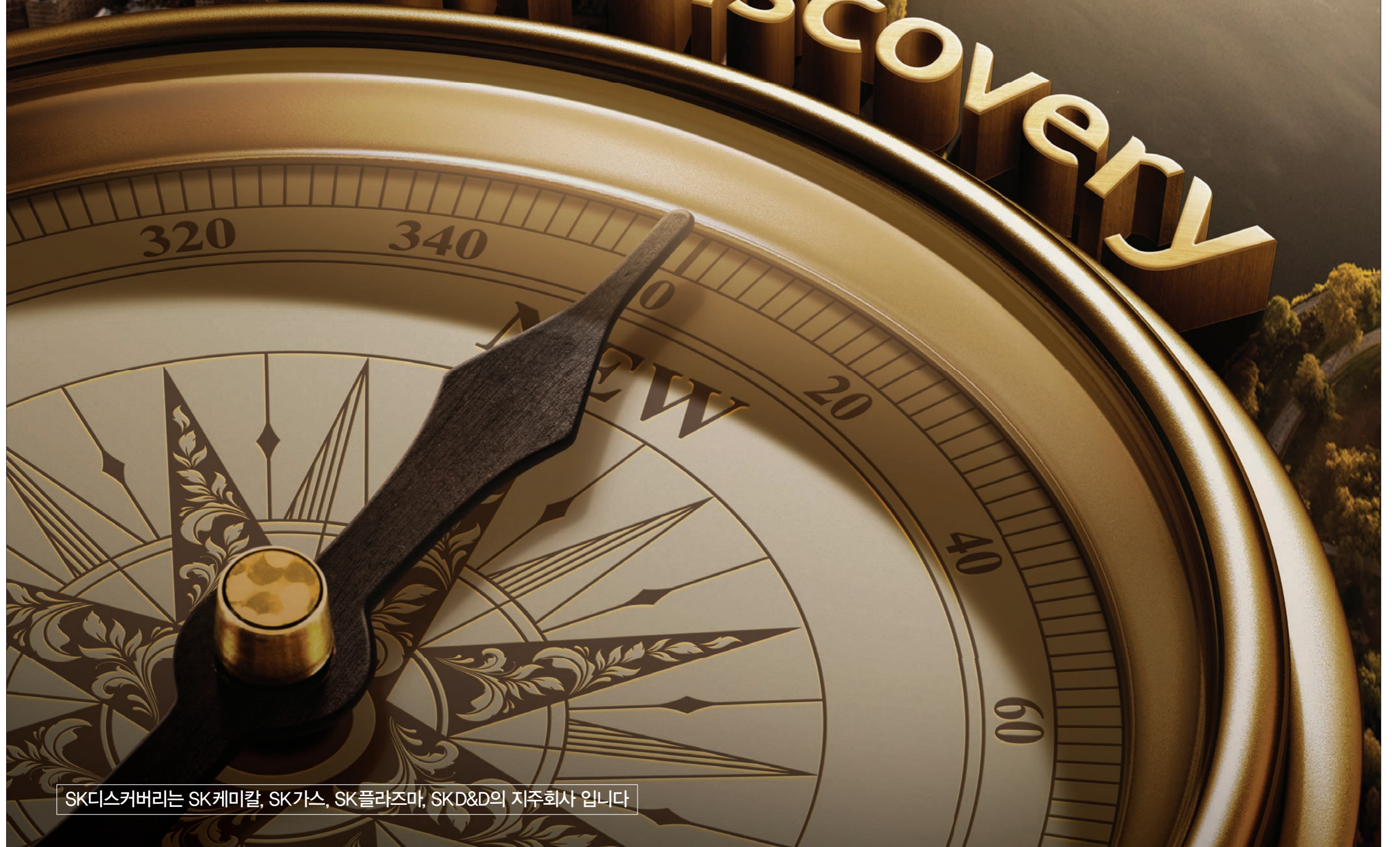
그렇게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인간의 삶과 환경에 이로움을 더하고
세상을 더 나은 출발점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미래는
흘러가는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발견이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SK DISCOVERY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SK가스, SK플라즈마, SKD&D의 지주회사입니다

‘早期취업’ 형태 고교 현장실습 폐지

**사회장관회의 사망사고 대응방안
올들어만 실습생 2명 목숨 잃어
3개월내 학습중심 실습만 허용
의료현장 非인권 행위 대책도**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제도가 10년 만에 다시 사라진다.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1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는 콜센터에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 고3 실습생 이만호 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숨졌다. 올해만 두 명의 학생이 산업재해 관련 현장실습에서 목숨을 잃자 현장실습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963년 처음 시작된 현장실습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이 진로취업의 목적보다는 저임금 노동자를 배출하고 학교 현장의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업 파견형 현장실습 위주였던 ‘현장실습’을 △직업체험·교내 실습 등으로 다양화하고 △파견형일 경우에도 3학년 2학기 수업의 3분의 2를 이수한 이후 실시하되 졸업 뒤 해당 기업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한정하고 △경제적 목적의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은 금지하는 내용의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폐지됐다.

정부는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에 15일까지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 현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위반위

협사항이 있을 시 복고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안전위험 및 학생권의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와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학생들의 고용 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 등 의료현장에서 비인권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한다. 박은평 기자 pepe@



발리서온 전세계 여행객들, 이젠 안도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궁화산의 분화로 발이 묶였던 여행객들이 정부가 투입한 아시아나항공 특별 전세기편으로 수라바야 주안다 국제공항을 출발해 1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foto@

대우조선이 자회사와 거래 중단하자 보수단체 동원 항의집회 구재태 前 경우회장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대우조선해양이 자회사 거래를 중단하자 항의 집회를 열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구재태(75) 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 혐의로 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모(77) 전 경안흥업 대표와 임모(69) 경안흥

업 거래업체 A사 대표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으로부터 경우회 자회사인 경안흥업 고철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보수단체를 동원해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해 재계약을 따내 8억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회장은 또 2009~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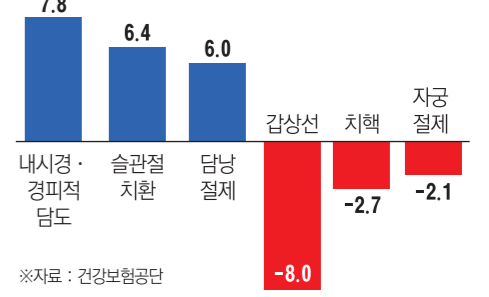
부동산자산운용사 경우AMC 설립을 위해 마련한 출자금 17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회삐돈으로 갖고, ‘국회개혁 범국민연합’ 활동 비용으로 16억 4000만 원을 쓰는 등 경우회 등 관계사 자금 총 2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구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우AMC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경우회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아 경우회에 9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 경우AMC 설립 차용금 중 2억 원을 갖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경우AMC 주식을 고가에 경안흥업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확인됐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백내장’

**작년 36만1000명·치핵·제왕절개 順
과다진단 논란 갑상선 5년새 34% 폭**

**대민도 수술 연평균 증가율 상·하 3위
(단위 : %)**



지난해 가장 수술을 많이 한 질환은 백내장 수술로 나타났다. 과잉진단 논란에 휩싸인 이후 갑상선 수술을 받는 환자 수는 급격히 줄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33개 주요 수술을 분석한 ‘2016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보면 한 해 동안 이뤄진 수술건수 179만3535건 중 백내장 수술은 36만1000명이 받았다. 다음으로 치핵수술 19만9409건, 제왕절개수술 17만215건, 일반적추수술 16만8836건 등의 순이었다.

대민도 수술 중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수술로는 내시경 및 경과적 담도 수술(7.8%), 슬관절 치환술(6.4%), 담낭절제술(6.0%) 등이 있었다. 반대로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이 높은 수술로는 갑상선 수술(8.0%), 치핵 수술(2.7%), 자궁 절제술(2.1%) 등이었다.

갑상선 수술은 2011년 4만4234건, 2012년 5만1513건, 2013년 4만8948건 등으로 연간 4만~5만 건에 달했다. 그러다 2014년 3월부터 의료계 일부에서 과다진단 문제를 제기해 논쟁이 벌어진 뒤 2014년 3만7162건, 2015년에는 2만8214건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후 2016년 2만9201건으로 소폭 늘었으나, 5년 전인 2011년과 단순 비교하면 34% 떨어졌다.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용은 4조9000억 원

으로 연평균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술 건당 진료비는 심장 수술이 269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상동맥 우회 수술(2657만 원), 뇌기저부 수술(1475만 원) 등이었다. 수술비가 적은 순서로는 치핵 수술(91만 원), 백내장 수술(95만 원), 편도절제술(105만 원)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이 많았고, 10대는 중수 절제술, 20~30대는 제왕절개 수술, 40대는 치핵 수술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과 더불어 근골격계와 관련된 일반 척추 수술이 많았다.

주요수술통계연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산출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건설업체 상장 1호’ 경남기업, 시장 복귀한다

2년여 만에 회생절차 종결...동아건설 컨소시엄 인수계획 인가

오너 리스크에 이어 두 차례 인수합병(M&A)에 좌절했던 경남기업이 시장에 복귀한다. 회생 신청을 낸 지 2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관계인집회에서 정한 동아건설산업 컨소시엄이 653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 경남기업은 피인수 대금으로 회생담보권 264억 원과 회생채권 362억 원을 갖고, 21억 원을 에스스코 계좌에 예치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베트남 랜드마크 타워와 수완에너지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자산 매각도 병행했다. 우발채무 리스크를 줄이고 잠재적 인수자들의 인수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수완에너지가 부담하는 대출금의 리파이낸싱 문제 등으로 두 차례에 걸친 공개매각에서 실패했고, 올해 초 삼익약기와 최종계약을 맺

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과 8월 각각 M&A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3차 매각공고를 내고 입찰절차를 진행한 결과 동아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경남기업은 새로운 경영자를 중심으로 조기에 정상 회사로 복귀해 고용 창출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상장 1호인 경남기업은 2009년, 2014년 워크아웃에 실패한 뒤에도 자본잠식으로 재정 파탄상태에 이르러 2015년 3월 회생신청을 냈다. 최대주주인 고(故) 성완중 회장의 해외자원 외교 의혹으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회사 압수수색과 직원 조사가 4개월여 진행됐다. 제3차 관리인을 선임한 후 회사 조직을 슬림화하고, 책 읽는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임원을 대폭 감축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이어왔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중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동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자동입력 단계: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단계: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산업동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제2금융권 대출 105兆 넘어 사상 최대

中企·자영업자 ‘도미노 倒産’ 우려 확대

대출금리 0.1%p 인상엔 폐업위험도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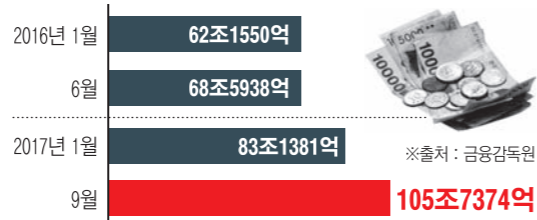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하자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이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주력하면서 리스크가 큰 개인사업자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비(非)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5조73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초보다 43조5824억 원 늘어났다 이어 올해 들어서만 22조5993억 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도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제2금융권이 새 수익을 찾아 개인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린 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소 등을 담보로 담보가액의 80% 이상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용도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사업자대출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뽕수대출’이 확대될 경우, 부실이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금리가 본격

제2금융권,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추이 (단위: 원)



적인 상승세를 타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월등히 비싸다. 저축은행의 기업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는 8월 기준으로 8.46%로 예금은행(3.6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대출금리 수준도 올 1월 7.97%에서 4월 8.06%로 0.09%포인트 상승한 이후 5월(8.28%), 6월(8.29%) 등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앞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더 뛰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할 때 중소기업 폐업 위험도는 7.0~10.6%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출이 많은 중소기업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손태승 “소규모 자산운용사 인수”

《우리은행장 내정자》

공정한 인사·금융지주 체제 전환 등 내부 안정화·경영정상화 주요 과제로 국내 1등 종합금융그룹 도약할 것



22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우리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된다. 이날 취임식도 열릴 예정이다. 임기는 22일부터 3년간이다. 노조도 손 내정자 선출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손태승(58·사진)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자는 “최근 채용비리 사태를 계기로 고객, 주주, 시장의 신뢰를 받는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내정자는 이를 위해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부터 인수합병을 진행할 뜻도 내비쳤다.

손 내정자는 1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내정된 CEO이기 이전에 30년간 우리은행에 몸담아 온 임원으로서 현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어갈이 말했다.

우리은행은 전일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손태승 글로벌 부문 겸 글로벌그룹장을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확정했다. 손 내정자는 지난달 2일 이광구 행장이 사퇴 표명을 밝힌 이후 지난달 5일부터 행장 대행 역할을 맡아왔다. 손 내정자는 오는

은 한일은행 출신인 이종휘 행장(2008년 6월~2011년 3월) 이후 상업은행 출신인 이순우 행장(2011년 3월~2014년 12월)과 이광구 행장(2014년 12월~2017년 12월)이 6년간 수장 자리를 차지했다.

손 내정자는 내부 혁신과 완전 민영화·지주사 전환이라는 굵직한 과제들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오는 29일까지 운영되는 ‘내부 혁신 TFT’의 최종 결과물이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허물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달 6일, 인사와 조직을 혁신할 내부 TFT를 꾸렸다.

우리은행은 여전히 예금보험공사가 단일 최대주주(18.52%)로 남아 있는 만큼 예보 지분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후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과제다. 손 내정자도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종합금융그룹으로 가려면 비은행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야 해서, 단계적으로 규모 작은 자산운용사부터 단계적으로 M&A(인수합병)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수협銀 ‘소매·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 조직개편

아파트 밀집지역 미니점포 설치·비대면채널 확대 등 수익구조 다변화

수협은행은 내년 리테일 영업 강화해 고객 수를 2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협은행은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범 이후의 성과와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동빈(사진) 수협은행장은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리테일 기반 확대”라며 “현재 110만 명 고객 규모를 200만 명 이상 확대하도록 영업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은행은 소매중심 영업전략을 실행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 소매금융을 중점 취급하는 저비용·고효율 미니점포를 배치해 개인예수금 및 잔금대출 취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우수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집중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시범적·단계적 PB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수협은행은 소매금융 중심의 안정적 자산 증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 행장은 “자본 규모가 작은 만큼 위험 가중치가 낮은 리테일 여신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예대



금 규제를 고려해 리테일 예금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협은행은 내년도 원화대출금 2조 3000억 원 중 2조 원을 소매금융으로 증대하고 소매대출 고객유치에도 힘을 기울인다.

수협은행은 내년도 5대 핵심 과제로 △자율경영기반 구축 △소매금융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내실 경영 △수익창출 기반 확대 △강한 기업문화 구축을 내세웠다.

수협은행은 자율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공적자금 조기상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세제 건의(배당금 손금산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익창출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비대면채널 경쟁력 강화와 비이자사업 확대를 내세웠다. 디지털금융을 키우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방카슈랑스·펀드·외환·카드·신택 등 비이자사업 활성화로 수익구조 다변화에도 나선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지정감사 제외엔 외부감사법 개정 無用之物”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기업 감사 회피 위해 재지정 활용 지적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30일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이 개정됐지만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외감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업 감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이날 여의도 컨벤션 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송년 세미나에서 “외감법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중 하나로 “일반감리는 금융당국이 기업의 감사인을 정하는 지정 감사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는 감리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로 나뉜다. 이 중 심사감리는 기업의 공시와 자료를 토대로 회계를 점검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감리를 뜻한다.

외감법 개정안은 최근 6년간 감리를 받은 기업 중 지적 사항이 없는 곳은 지정 감사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리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칫 심사감리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 지정 감사제 제외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회계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최 회장은 “감리에서 지적 사항이 없으면 뺄다고 하는데, 정밀감리 이외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외감법 개정안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감사인 복수 지정 방식과 재지정 요청 방안도 디테일 속에 악마가 숨어 있다. 회사가 처음 상장할 때는 금융당국이 정한 복수의 회계법인 중 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회계법인 중 한 곳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회장은 “이런 안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이 감사를 깐깐하게 하는 곳은 피하기 위해 재지정 요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기업의 감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0년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초기에 지정 감사를 대폭 시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2000여 개 상장사 중 1400여 개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 500여 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지정 감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시행 초기에 지정 감사제가 대폭 시행되는 ‘해비 프론트 로딩’ 방식이 아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산지에서 식탁으로

더 건강하게, 농산물에 안전을 더 하다

건강한 자연만 보냅니다

GAP (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Good 우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
Agricultural 농산물 농약, 유해 미생물 등의 위해요소 관리
Practices 관리 이력추적관리

GAP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포장까지 모든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미생물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GAP정보는 www.gap.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스트 반도체' 제약·바이오사업 속도 내는 SK 최태원의 '승부수' 한발 앞으로

(SK그룹 회장)



SK그룹이 최태원 SK 회장이 꼽은 '포스트 반도체' 사업인 제약·바이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주)의 제약·바이오사업(CMO)인 SK바이오텍이 내년부터 유럽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글로벌 톱10 CMO'라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1일 SK에 따르면 SK바이오텍은 6월 인수한 아일랜드 스위즈시에 위치한 브리스톨마이어 스스콕(BMS)의 대형 원료 제약 생산 공장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사 제품을 생산하며 유럽 CMO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텍은 이번 달 BMS 공장 인수 대금을 치를 예정이다. SK(주)는 SK바이오텍에 172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11일 출자하고 SK바이오텍은 이 자금을 BMS 공장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이후 합병후통합(PMI)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BMS 공장에서는 BMS의 합성 제약물은 물론, 다국적사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통합 이후부터는 SK바이오텍의 제품도 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SK바이오텍은 연속·고압 촉매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에이즈,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 각종 질환 치료제의 원료·약품 및 제약·바이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통합 이후부터는 SK바이오텍의 제품도 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SK바이오텍은 연속·고압 촉매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에이즈,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 각종 질환 치료제의 원료·약품 및 제약·바이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통합 이후부터는 SK바이오텍의 제품도 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SK(주) 관계자는 "SK바이오텍에 대한 유상

의약품 CMO '바이오텍' 내년 유럽 진출
'글로벌 톱10 CMO' 목표 한걸음 다가감
유상증자로 BMS공장 인수 이달 대금
'바이오팜' 신약·의약품간체 연구개발
美 FDA에 수면장애치료제 신약 신청
장녀 입사하며 그룹내 높아진 위상 증명
'바이오랜드' 화장품·의약품 원료 생산
AI기술 적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증자는 새로운 투자가 아닌 BMS 공장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BMS 공장에선 기존 고객사를 몰방만을 생산하고 있지만 PMI 완료 이후엔 SK바이오텍 몰방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SK의 바이오사업이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 데는 최 회장의 바이오 사업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최 회장은 "최고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딥 체인지(근본적 변화)'에 대한 고삐를 늦추서는 안 된다"며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바이오 사업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SK는 2007년 지주사 체제 전환 당시에도 신약개발 조직을 지주회사 직속으로 두고 그룹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SK바이오텍을 SK(주)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

로 승격시키며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다.

SK는 SK바이오텍 외에도 중추신경계 혁신 신약 등 새로운 의약품 개발하는 SK바이오팜과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는 SK케미칼을 통해서도 바이오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신약, 의약품간체, 항생물질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면장애 치료 신약 'SKL-N05'에 대한 신약허가(NDA) 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최 회장의 장녀 윤정 씨가 6월 SK바이오팜에 입사하며 SK그룹 내에서 높아진 위상을 증명했다. SK케미칼은 혈우병 치료제 '엡스틸라',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을 겨냥한 NBP608 등을 앞세워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바이오랜드 역시 화장품과 천연 의약품 원료 등을 생산하며 SK의 바이오 사업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SK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개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제약·바이오 사업에서 개인 헬스 분야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SK(주)는 지난 30일 AIA생명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AIA바이탈리티'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AIA바이탈리티는 사용자의 흡연·음주 습관, 운동량·시간 등을 관리해 주고, 목표를 달성하면 제휴사 포인트·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주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이다. SK의 AI 기술이 적용되면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성과주의' 택한 LG 역대 최대 '승진 파티' 구본준 색깔 더 짙어져

(LG그룹 부회장)

LG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LG그룹의 임원 인사 키워드는 성과주의와 미래준비로 압축된다. 급격한 세대교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구본준(사진) 부회장이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올해 상반기 전락보고회와 하반기 업적보고회를 주재한 만큼 그의 색깔이 짙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주사인 ㈜LG와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모두 154명(부회장 1명, 사장 5명, 부사장 16명, 전무 40, 상무 92명)을 승진시키는 2018년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사회가 열리는 밤은 LG상사를 제외하고도 역대 최대 규모 인사다.



하현희 부회장 승진 등 154명 임원인사 단행 65%가 이공계...미래사업 준비 조직개편도

▶관련인사 16명

올해도 인사 계획이었던 '성과주의' 중심으로 승진자를 발표했다. (주)LG의 경우 하현희 부회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그룹 전반의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실적 개선을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올레드 TV 판매 확대를 통해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한 권봉석 LG전자 HE사업본부장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으며, 성장 사업 분야인 사이니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 권순환 LG전자 B2B사업본부장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직자에 시달리던 LG전자 MC사업본부는 HE 사업본부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해 온 황정환 MC담당사업부장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MC사업본부장에 임명했다. 2015년부터 스마트폰 사명탑을 맡아온 조준호 사장은 LG인화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수화 LG전자 상무는 장비·공정기술 개발을 통한 계열사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것을 인정받아 부사장으로 발탁. 최승돈 LG화학 연구위원은 자동차전지 셀 개발 역량을 인정받아 전무로 2단계 승진이 됐다.

특히 LG신성장사업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구부

회장이 올해 그룹 계열사 전반의 주요 현안을 챙긴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기술인력 대거 증용을 통한 그의 신성장사업 육성에 의미가 더욱 강조됐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승진 인사 가운데 65%가 이공계라는 점이다. 탁월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R&D 전문가로 선별된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성과가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에 대한 수석연구위원 승진을 확대했고,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 연구 인력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또 AI(인공지능) 전문가로 AI 가전 기획과 개발을 이끌고 있는 류해정 LG전자 H&A(생활가전) 스마트솔루션사업 담당 상무를 LG전자의 첫 여성 전무로 승진시켰다.

미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실시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자 스마트폰·TV·자동차 부품 등 각 분야의 제품을 연결하는 '융복합사업개발센터'와 B2B부, ID사업부, 에너지사업센터 등을 통합해 'B2B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번 인사에서 LG그룹 올나가 4세인 구광모(주)LG 상무가 B2B 사업본부 ID(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을 맡게 됐다. 그는 구 부회장 아래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신성장 사업 추진 역할에 집중, 차세대 R&D 투자를 책임진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SK디스커버리' 공식 출범

SK케미칼, 사업회사 분할 지주사 체제로 전환
최창원 부회장 대표·박찬중 부부장 총괄 맡아

'SK디스커버리'가 공식 출범했다. SK케미칼은 1일 기존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로 법인이 존속되고 사업회사가 분할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신설 사업회사는 기존 사명인 SK케미칼을 이어 받았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분할 비율은 48대 52이다.

이번 분할로 SK디스커버리는 자회사 관리와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집중하고 SK케미칼은 기존의 화학사업과 제약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

SK디스커버리의 대표이사는 최창원 SK케미

칼 부회장, 총괄로는 박찬중 SK케미칼 부부장이 선임됐다.

박 SK디스커버리 총괄은 "지주회사의 출범을 통해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화된 체제의 빠른 안착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K디스커버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과 고부가 신규사업 성과 가치화에 따라 사업회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기능을 분리

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책임 경영 확대에 주주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SK디스커버리는 지주회사 전환에 앞서 6월 이사회 승인, 10월 주주총회를 거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분할을 의결했다.

SK디스커버리 관계자는 "지주회사 출범에 따라 각 사업회사들은 전문성 강화로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9일부터 매대 거래가 정지된 SK케미칼 주식은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로 분할돼 내년 1월 5일 변경시장 및 재상장될 예정이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전기차 덕에...상신브레이크 '리타더 특수'

전지식 보조 브레이크 역할 커져

전기차 상용화에 따라 자동차 브레이크 제조 업체인 상신브레이크의 리타더(비접촉식 제동 보조장치)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리타더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제동 보조 장치로 감속 기능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제동장치는 마찰을 통해 감속 또는 정지하는데, 리타더는 브레이크 패드를 통한 마찰식 제동이 아닌 비접촉식으로 제동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다. 현재 리타더는 관광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에 주로 쓰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시대에서 리타더

의 역할은 확대될 전망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엔진이 아닌 모터에 의해 구동된다.

제동도 모터와 관련이 깊다. 상신브레이크 관계자는 "모터에 의한 제동 부분이 늘어나면서(마찰식) 주 브레이크의 역할은 감소하고 전지식 보조 브레이크(리타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접촉식 제동장치인 리타더 사용은 차량 안전성과 연료 효율성을 높인다. 리타더 사용으로 인한 주 브레이크 사용 감소는 브레이크 패드 마모를 줄이고 브레이크 드럼의 과열을 예방한다. 브레이크 드럼 과열은 여름철 타이어 파열 사고

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리타더에는 감속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회생 제동기술'도 포함돼 있다.

상신브레이크는 브레이크 관련 선도 업체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상신브레이크는 국내 최초 리타더 생산에 이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신브레이크는 이미 중국에서 2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 로컬 OEM으로부터의 수주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안전성 제고를 위해 리타더에 대한 강조는 수년에 걸쳐 이뤄져 왔다"며 "전기차 시대 도래에 따라 차량에서 모터의 역할이 커지고 연료 효율 제고를 위해 리타더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제조사	화웨이	샤오미	TCL커뮤니케이션
모델명	비와이2	미(Mi) A1	블랙베리 키원
디스플레이	5.2인치 (1080×1920)	5.2인치 (1080×1920)	4.5인치 (1080×1620)
램	3GB	4GB	4GB
내장 메모리	32GB	64GB	64GB
배터리	3000mAh	3080mAh	3505mAh
출시일	12월 4일	12월 14일	12월 18일
가격	39만 원	29만9000원	55만 원

'가성비 甲' 中 스마트폰 무섭게 몰려온다

화웨이·샤오미·TCL 등 업체
30만~50만원대 중저가폰 대거 출시
서비스센터 확충 등 고객만족도 높여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연말 국내 시장에 30만~50만 원대 중저가 모델을 대거 출시한다. 애플과 삼성 등 100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폰이 잠식하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와 샤오미, TCL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달 중저가 모델을 출시한다. 동시에 서비스센터도 확충해 가성비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중국 스마트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6% 정도다. 내년까지 두 자릿수(10%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웨이코리아는 4일 '비와이'의 후속 모델인 '비와이2'를 내놓는다.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를 통해 프리미엄폰 P9을 출시한 이후 11개월 만에 내놓는 새 모델이다. 비와이2는 화웨이의 프

리미엄 스마트폰 P10의 보급형 모델인 P10라이프의 한국식 모델이다. 화웨이코리아는 지난해 9월 KT 전용폰으로 화웨이 P9 라이트를 '비와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바 있다. 비와이2 역시 KT 전용폰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39만 원이다.

샤오미도 14일 중저가 폰 '미(Mi)A1'을 출시한다. 미A1은 광학 줌 기능이 지원된 듀얼 카메라를 장착해,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수요층이 타깃이다. 국내 출시 가격은 29만9000원이며 전국 7개 아이나비 공식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해 AS를 받을 수 있다.

TCL커뮤니케이션은 18일 CJ헬로 알뜰폰 헬로 모바일을 통해 '블랙베리 키원'을 출시한다. 출고가는 55만 원으로 해외보다 10만 원 낮게 책정됐다. 블랙베리 키원은 TCL커뮤니케이션이 지난해 12월 캐나다 휴대폰 제조사 블랙베리의 브랜드와 로고 사용권을 인수한 이후 내놓은 첫 제품이다. 국내판 키원 블랙은 인도, 중국의 키원과는 달리 쿼터 자판에 한국어가 각인돼 있다. 전국 105개소로 구축된 동부대우전자 서비스센터에서 AS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병근 기자 nova@

www.dongsung-pharm.co.kr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을 뛰어넘는 내일을 생각합니다

Health from Nature - 동성제약

자연에서 찾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온 동성제약은 양귀비, 정로환, 세븐에이트 등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으로 60년 동안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빛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분야 연구를 미래성장동력으로 100년을 준비합니다. 동성제약은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수서역세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모델하우스 가보니

'可變型 구조'로 설계, 필요 따라 공간 再구성

지난달 29일 서울 수서 터스마티움에 마련된 신혼부부 희망타운(이하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현장엔 전용면적 55㎡ 유형이 모델하우스로 전시됐다. 소형 평형이지만 내부 구조는 침실 2개, 욕실 2개, 부부파우더룸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침실마다 가변형 구조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부부가 아이를 낳은 후 육아 맞춤형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가변형존(ZONE)1은 침실2에 짜 넣었다. 서재 및 취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실2와 알파룸 사이에 가변형 벽체를 설치했다. 육아 시 벽체를 제거하면 소아침실, 키즈플레이존으로 활용 가능하다. 가변형존2는 침실1과 연결된 부부파우더룸에 마련됐다. 부부파우더룸을 육아 시 육아 침실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업장달 LH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전용면적 44㎡에서 59㎡까지 제공되며, 이 가운데 55㎡(분양면적 22평)는 대표적인 타입"이라며 "부부가 신혼 기간부터 아이의 성장 때까지 약 20년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자식 우편함, 음식물 분쇄 기능을 갖춘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욕조의 스마트 조명팬(FAN) 등이 편리함을 더했다.

현관문 앞에 설치된 전자식 우편함은 비밀번호

신혼부부로 살 땐 알파룸·파우더룸 아이 낳은 후 벽체 제거 소아침실로 맞벌이 부부에安心 '전자식 우편함'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등 편리 임대형 입주, 초기부담 집값의 10%

를 입력해 잠금 설정을 할 수 있다.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은 닭뼈 등 음식물을 분쇄해 배출하도록 구조됐다. 스마트 조명팬은 욕실 내 습도, 조도 센서와 연결해 욕실 내의 습도조절, 조명제어 등을 할 수 있도록 탑재됐다.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의 신호탄 격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남 수서동 187번지 일원에 38만6390㎡(약 11만7000평) 면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2530가구를 수용할 예정이며 이중 청년주택은 1910가구, 신혼희망타운은 620가구가 각각 이뤄진다. 수용 인구는 5494명으로 계획했다. 2021년 내 입주가 목표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 대상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며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또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2016년 기준 3인 이하 가구 월 586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분양형은 입주 시 주택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초기 부담액은 주택 가격의 30% 수준이다. 나머지는 수익·손익 공유형 대출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이는 1%대 저금리로 주택 매각 차익이나 손실을 국민 주택기금과 나눠 갖는 형태다. 만기 20~30년에 월 50만~100만 원 내외 원리금 상환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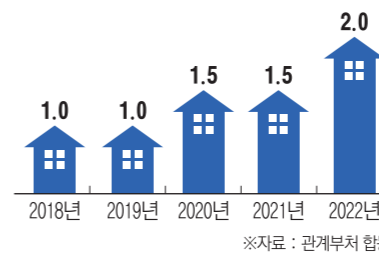
임대형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초기 부담은 주택 가격의 10~15% 수준이다.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매달 월세와 빌린 보증금 일부의 원리금을 함께 내면 된다. 월 50만~100만 원 수준의 원리금·임대료 납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택지인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에 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40여 곳의 택지 지구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신혼희망타운 4만 호가 들어선다. 먼저 △성남 금포 △성남 북정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과안 △의왕 월암 △경산 대입 등 9곳이 신규 지정됐다.

서지희 기자 jhsseo@ 이신철 기자 camus16@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공급 (단위: 만 가구)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 가구 (수도권 4.7만) 공급



업장달 LH 처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수서 터스마티움에 마련된 신혼부부 희망타운 모델하우스에서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신혼부부 희망타운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서지희 기자 jhsseo@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가성비 높은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테니켈(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70개국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GMT
1547.1135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개포 주공8, '분양가 상한제' 첫 타자 되나?

입점 상인 등 갈등, 분양 내년 연기 '상한제' 조건 충족... 가격 관심집중 업계 "4000만원대 책정 가능성"

올해 마지막 강남권 분양물량인 개포 주공8 단지의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이 단지의 분양가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8단지는 내년 2월께 분양 시장에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내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입점 상인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해당 부지를 현대건설, GS건설 등의 컨소시엄에 판 공무원연금공단과 입점 상인들 사이에서 촉발됐던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어서다. 현대건설은 조속히 갈등을 해결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고 분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이 미뤄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도 커졌다. 강남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 주공8단지는 분양선 대모산 초역세권 위

지에 지하철 3호선 대정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뛰어난 데다 학군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에서 시프트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1690가구에 달하는 점도 관심을 높였다. 분양가는 3.3㎡당 4500만~4800만 원으로 예상됐다.

개포 일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 지역의 평당 분양가가 5300만 원인데다 레미안 루체하임의 프리미엄이 2억 원까지 붙을 것을 감안하면 3.3㎡당 4800만 원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남권 고분양가 통제 등 규제 분위기에 4000만 원 초반대에 시장에 나오지 않겠냐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 나오는 3800만~4000만 원 가격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땅값에만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 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사업 진행 속도로 봤을 때 분양은 내년 1월이 아닌 2, 3월이 될 것"이라며 "상한제 변수로 예상하기 어렵지만 분양가는 4000만 원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내년 주택 매매가 0.2% 상승"

住産研, 시장 전망... 전세價 올해와 비슷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추산연)은 내년 주택시장이 매매가는 0.2% 상승하고 전세가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추산연은 '2018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내년 전국 매매가격은 지방의 하락국면 전환이 본격화되지만 서울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보합(0.2%)을 유지하고, 전세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지방의 국지적 역전세 가능성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는 △금리 △대출

규제 △가계부채 △공급량 △입주량으로 지목됐다. 공급 요인보다는 금융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영향이 커질 것이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증가가 시작되는 4월 이후 2분기는 최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공급은 10% 내외로 감소하면서 인허가 52만 9000호, 착공 43만 9000호, 분양 32만 1000호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준공물량은 2016년에 급증한 인허가 영향으로 올해 대비 10% 정도 증가한 63만 3000호 수준으로 전망됐다. 재고주택 대비 준공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성·충청 등 지역은 가격하방과 역전세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용 기자 cogito@

"입주민 수요+외부 수요 유입" 대단지 內 상가, 투자 몰린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상업시설이 뛰어난 투자 가치 및 희소성을 바탕으로 연일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를 유의 깊게 살펴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단지 내에 위치한 상업시설의 경우 고정 배후 수요가 많고 외부 수요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지 내 상업시설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만 사용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때문에 세탁소, 슈퍼마켓, 학원, 부동산 등 기본적인 요소들만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단지 내 상업시설도 단순한 박스형 설계가 아닌 각자만의 테마를 바탕으로 테라스형, 유럽형, 스트리트형 등 차별화된 구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고 업종 구성 역시 그 범위가 넓어졌다.

실제로 분양 후 초기 완공에 성공한 상업시설 사례를 살펴볼 때 대규모 배후 수요 및 뛰어난 머천다 이징(MD)구성을 갖춘 단지 내 상업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 아이파크 시티 5차 상업시설 청약에는 93개 점포 공급에 무려 5000여 명이 나서며 평균 50대 1, 최고 551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1152가구에 달하는 단지 내 고정 배후 수요에다가 일대에 형성된 7000여 가구 규모 아이파크 시티의 수요 흡수도 기대됐기 때문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베네통만의 原色 되찾자” 82세 창업주, 구원 등판

이탈리아 패션업체 베네통의 창업주가 82세 나이로 경영 일선에 복귀,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베네통은 한때 '유나이티드 컬러즈 오브 베네통(United Colors of Benetton)'을 모토로 패션업계에 원색 돌풍을 일으켰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창업주가 경영 복귀를 선언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베네통의 창업주 중 한 명인 루치아노 베네통 회장은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라 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경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형제·자매와 베네통을 설립하고 1978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을 지냈다.

베네통 회장은 “2008년 당시 1억5500만 유로(약 2005억 원)의 자산을 남겼는데 지난해 기준 회사가 8100만 유로 적자 상태에 놓였다. 올해에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갑내할 수 없는 고통이다. 이것이 내가 돌아가는 이유”라며 82세 나이에도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배경을 밝혔다.

베네통은 수수한 색채 일색이던 패션계에 도발적인 원색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캐주얼 의류 브랜드 유나이티드 컬러즈 오브 베네통을 필두로 패션 브랜드 '시슬리', 스포츠 의류 브랜드 '플레이어 이프' 등을 전개했다. 그러나 모방기업이 늘어나면서 베네통만의 특색을 잃었다. 2012년 베네통 회장이 아들 알렉산드로 베네통에 경영권을 넘기고 나서 위기는 커졌다. 스페인의 자라, 스웨덴의 H&M 등 SPA 업체들이 부상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가족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겼음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결국 창업주가 발벗고 나섰다.

베네통 회장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모방해 유나이티드 컬러즈는 색을 잃었다”며 “자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밝은 색으로 가득했던 매장은 어두워졌다. 우리 매장은 남미와 미국에서 문을 닫았다”고 언급했다.

**모방업체 늘고 '컬러' 전통 잃어
2008년 1억5500만 유로 흑자서
2016년 8100만 유로 마이너스
고유의 밝은색 다시 살리기로
전성기 이끈 광고 감독도 복귀**



루치아노 베네통 회장(위)과 다양한 색채를 강조한 광고 제작자 토스카니의 새 베네통 캠페인. 허핑턴포스트·포브스

특히 회사의 상징이던 스웨터 제작을 중단한 게 치명적이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14세의 나이에 옷가게에서 일하던 베네통 회장은 스웨터를 생산하는 기계를 사들여 노랑·초록색 등의 스웨터를 만

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베네통 회장은 “스웨터 생산을 중단한 게 최악의 죄”라면서 “마치 수로에서 물을 제거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베네통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직원 수는 2008년 9766명에서 현재 7328명으로 줄었다. 베네통 회장은 감원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모든 이에게 기회를 줄 것이지만 반드시 사업을 가볍게 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베네통의 전성기를 이끈 사진작자 겸 광고 제작자 올리비에로 토스카니도 17년 만에 베네통에 복귀한다. 이날 영국 가디언은 토스카니가 다문화주의를 다룬 베네통의 새 광고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토스카니는 1982년부터 2000년까지 베네통의 광고 캠페인 감독을 맡았다. 그는 “상품을 앞세우지 않고 사회적 금기를 다룬 도발적인 광고로 주목을 끌며 ‘노이즈 마케팅’으로 베네통의 이름을 알렸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남성, 빗줄을 자르지 않은 신생아 사진 광고 등이 논란을 일으켰다. 인종도 말라도 심장은 다르지 않다며 인종 차별을 비판한 광고는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가디언은 토스카니의 합류가 베네통이 손실을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베네통 회장과 토스카니는 베네통의 색채를 되살리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토스카니는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색채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품을 재디자인해 우리가 초기에 가졌던 ‘마법’을 갖게 할 것이며 매장도 다시 꾸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인 광고도 이어갈 계획이다. 토스카니는 “패션은 정치적이다”라며 “나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계와 미디어는 우리의 캠페인을 비판했지만 우리는 성공을 거두었다”면서 “회사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주혜 기자 winjh@

우유? 치즈편드? 헤지펀드 이색 투자가 뜬다

**주식·채권 벗어나 상품에 투자
올 이색펀드 두 자릿수 수익률
수년간 대세였던 추세추종형
2% 수익 그쳐...투자 다양화**

올해 대체로 부진한 성적을 냈던 글로벌 헤지펀드 업계가 이색펀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수년간은 컴퓨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해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추세추종형 펀드에 꾸준히 자금이 유입됐다. 그러나 올해 추세추종형 펀드 평균 투자 수익률은 2%에 그친 반면 이색펀드는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개했다.

이색펀드는 전통적 투자상품인 주식과 채권을 벗어나 다양하고 색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들 펀드는 브라질과 체코의 금리 파생상품에서 천연가스

우라늄, 심지어 우유와 치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고 있었다.

시스템마티카의 12억 달러(약 1조3049억 원) 규모 알터너티브마켓펀드의 올해 투자수익률은 18.6%에 달했다. 이색펀드의 개척자인 영국 맨(MAN)그룹의 에블루션펀드도 올 들어 지금까지 15%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 이 펀드는 출범한 지 5년 만에 운용자산이 34억 달러로 불었다. 이색펀드 성과에 고무된 만그룹은 올해 또 다른 이색펀드인 에블루션프리미엄펀드를 출시했고, 이 펀드도 지금까지 수익률이 약 15%에 이르렀다.

시장 관계자들은 주식과 채권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이색펀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에 따라 펀드 성적이 흔들리는 사태를 피하는 등 이색펀드가 자산 다각화의 효율적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대부분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받지만 천연가스에 투자하는 이색펀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다. 이는 후자가 주식지수와 주요 원자재, 국제 등의 선물 거래를 추종하는 CTA(Commodity Trading Advisers) 전략과 무관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전반적인 시장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색펀드들의 견실한 성적에 헤지펀드 업체들도 울거늘 잇따라 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캔담캐피탈은 지난 달 이색펀드 전문의 디스커버리 펀드를 내놓았고, 에스펙트캐피탈도 이달 초 자체 알터너티브마켓펀드를 선보였다.

특히 에스펙트캐피탈의 새 펀드는 신홍국 통화와 전력 가격에 이르기까지 무려 160개가 넘는 상품에 투자한다. 에스펙트의 앤서니 토드 최고경영자(CEO)는 “이색펀드들의 성과가 매우 좋았다”며 “이러한 펀드가 투자하는 시장은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다각화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트럼프 “메리 크리스마스 아메리카” 첫 트리 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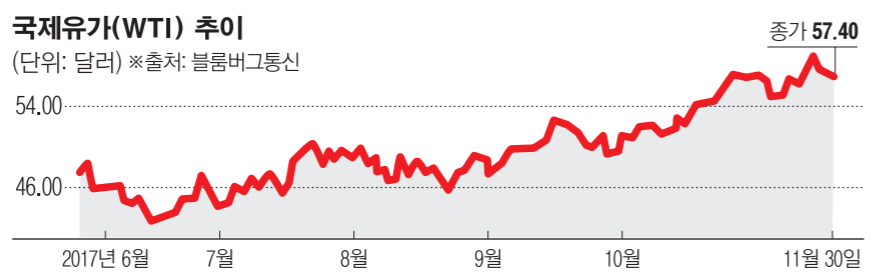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남쪽 엘림스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화하고 나서 무대로 걸어나가고 있다. 백악관 트리 점화식은 올해 95회째를 맞았다. 행사 사회는 배우 킴 카서와 방송인 케이시 리 기포드가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10부터 카운트다운을 했고, 멜라니아가 버튼을 누르자 트리에 달린 전구에서 불이 들어왔다. 트럼프는 빛을 뿜어내는 트리를 뒤에 두고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Merry Christmas, America)”이라고 외쳤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러시아·OPEC, 금 가는 산유국 카르텔

**감산 9개월 연장 합의했지만...
러, 감산 주저하며 '눈치 싸움'
美 셰일유에 점유율 뺏길까
유가 50달러대 안정되자 엃박자
사우디 “60달러 돼야 정상화”**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에너지 장관(왼쪽)과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빈/EPA연합뉴스



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러시아가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이유는 미국의 셰일 오일이 걸릴수록 작용한 탓이다.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자 러시아의 석유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잃을까 초조해하고 있다. 로스네프트, 가스프롬네프트 같은 러시아 석유 업체들이 대표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에서 기한을 9개월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전문가들이 감산 연장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앞서 러시아는 OPEC 회원국이 아니지만 OPEC 카르텔에 가까이 합류했다. 유가 하락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달러

래대까지 내려앉았다. 그런데 산유국들의 감산 이후 유가가 50달러대로 안정하자 러시아가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채산성이 맞아 현재 50달러대를 유지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OPEC과 엃박자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사우디는 50달러대에 만족하지 못한다. 60달러는 돼야 안정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 추측대로 산유국들은 ‘9개월 감산 연장’에 합의했으나 이날 국제 유가 상승은 제한적이었다. 이날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17%(10센트) 오른 57.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테크 인사이트

훗 내셔널시어터 연극 관람용 VR 개발

청각장애인, 자막 보느라 고개 안 돌려도 돼요

**무대 옆 작은 스크린 자막 대신
내년부터 모든 공연에 VR 적용**

영국 국립극장 내셔널시어터(NT)가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가상현실(VR) 안경을 개발했다.

작년 한 해 NT를 찾은 관객 140만 명 중 1585명이 청각장애인이었다. 이들은 무대 옆 작은 스크린에 뜨는 자막을 보면서 연극을 관람해야 했다. 자막과 연극 무대를 동시에 볼 수 없는 탓에 몰입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시선이 분산돼 세세한 연출이나 배우의 연기도 충분히 감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VR 안경이 개발되면서 이제 청각장애인도 NT 무대에 오르는 연극을 100%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됐다.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NT는 지난달 중순부터 데이비드 엘드리지가 쓴 코미디극 ‘비기닝’을 관람하는 청각장애인 관객에게 VR 안경을 제공했다. 내년 초에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상연에 VR 안경을 제공할



영국 런던에 있는 국립극장 내셔널시어터(NT)가 개발한 청각장애인 관람객용 가상현실(VR) 안경. 사진제공 내셔널시어터

예정이다. 내년 10월부터는 NT 내 3개 극장에서 상연되는 모든 공연에 무료로 안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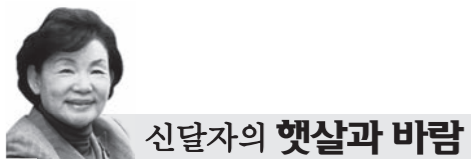
유서 깊은 국립극장이 관람객 복지를 위해 혁신적 기술을 선보이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영국에 있는 900~1100만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이 소식을 크게 반겼을 것으로 NT 측은 전망했다. NT의 조나판 서포크 기술 이사는 “이 기술이 구현된 것은 귀가 불편한 관객이 다른 관객들과 똑같이 연극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자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연극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준다”고 밝혔다.

루퍼스 노리스 NT 관장은 “1963년 험릿을 첫 공연으로 무대에 올린 로렌스 올리비에 관장의 뜻을 받들어 소수 민족, 노동 계급, 장애인 관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극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한 소망이 VR 안경을 개발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영국 배우 올리비아 콜맨과 올리비아 윌리엄스는 “한 박자 늦게 웃거나 우는 관객 없이 모든 관객이 동시에 리액션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런던 템스강 남쪽 사우스뱅크 지역에 있는 NT는 1848년 런던의 출판업자 에빙턴 윌슨이 설립을 제안해 1962년 완공됐다. 1963년 올리비에 감독을 관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첫 공연으로 셰익스피어의 ‘험릿’을 무대에 올렸다. 이후 고전극과 현대극, 최신 작품 등을 망라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신달자의 햇살과 바람

시인

한국인의 부뚜막 정신

한국의 피는 붉다. 그러나 그냥 붉은 것이 아니라 가을 햇볕에 맑은 하늘을 담아 발효시킨 고추처럼 붉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내가 태어난 나라라고 해서 차켜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생각해 보면 한국은 그런 낭랑한 피로 무(無)를 유(有)로 만들어 나라를 재건축한 힘의 나라라고 말해도 된다.

지금 이 나라를 재건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가난하고 배를 주리면서도 책을 꿰고 그 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것이다. 어디 책상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아궁이 위 찌그러진 솥이 걸린 그 옆에 손바닥만한 한 편편한 곳에서 책을 펴고 글씨를 썼던 그 세대들이 결국은 노동의 가치를 넘어 지식의 세상을 썼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부뚜막 정신'이라고 불렀다. 한국인의 정신에 이만한 것도 없다. 책상이 없다면 나뭇잎 위에서도 책을 놓고 봐야만 하는 당찬 정신이 바로 한국인의 '고추 정신'이 아닌가. 그러나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더러 자기 것을 파먹고는 텅텅 비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이 아니다. 진정한 한국인은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든 해내는 해내야만 하는 것이 한국인의 붉은 피의 상징인 것이라.

우리는 흔히 한국인을 '빨리빨리'의 대명사로 부르지만 나쁘지 않다. 이 빠른 정신이 오늘의 한국 토목공사가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터널을 뚫고 산을 지나가는 길을 만든 것도 바로 그 '빨리 정신'이다. 한국인에게 '막차 의식'이 있다. 마지막 기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어느 나라처럼 지금 못 가면 내일 가고, 내일 못 가면 모래가

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은 막차를 못 타면 죽는다는 각오로 모든 장애물을 비집고 그 기차를 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타다.

그러면 꼭 그 기차를 타야 하는 지상 절대기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집안 속에서 그저 늦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집단적 흥분과 스스로의 강압 속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린다.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처지지 말라'는 자의적 압박이다. 그토록 급하게 거의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없지 않다. 다 좋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이 결국 '해내고 만다'의 경지로 가는 것이다. 많은 부작업을 거쳤다. 아니 지금도 겪고 있다. 마지막이란 말에 한국



인은 절박해진다. 연애도 학교도 직장도 돈에서도 이 마지막은 피를 끓게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대학 학으로 이어지고, 직장에

서 진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뚜막은 순수 욕망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은 더러 거친 욕망이나 과도한 욕망으로 자기를 패하는 경우가 있지만 손바닥만한 부뚜막의 온기는 인간까지 순하게 만들어 할머니 그 할머니의 어머니들이 오늘의 삶을 이어준 것이다.

12월이다. 마지막이란 말이 주는 다급한 욕망을 열정이라고 부르고 그 열정의 힘을 기울여 마지막 달의 모습을 새해 1월에 당당히 비출 수 있게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달이다.

막차 의식은 활활 타오르는 불의 의미가 있지만 맹렬한 집중력이 있는 차디찬 얼음의 기류도 그 안에 흐른다.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운 살로 복원(復元)하는 치유의 힘으로 희망이라는 깃발이 부르는 새해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필상 칼럼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중국기업 공습 어떻게 막나

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우주개발 등 미래 산업 발전은 우리나라가 상대도 되지 않는다.

중국 2015년부터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펴고 있다. 산업구조를 부품과 중간재를 개발해 완성품을 만드는 구조로 바꾸고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차 등에서 세계 대표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 개혁과 첨단산업 투자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산업 발전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나라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이다. 중국이 완성품 생산체제를 갖추면 대중국 수출의 70% 이상이 중간재인 우리나라 수출은 결정적 타격을 받는다. 더욱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우리 경제는 '성장의 절벽'을 맞을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2.8%의 저성장률 기록했던 경제가 올해는 3%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기업 실적이 크게

호전했다. 3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8%나 늘었다. 증권시장도 활황세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인 2500선을 넘어 고공행진이다.

그런데 최근 경기 회복세는 산업구조 개혁과 성장동력 창출에서 온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에서 온 부분적 회복이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자마자 벌써 3고(舊)의 악재가 밀어닥치고 있다. 11월 들어서 원화 가치가 10%나 올라 수출을 위협하고 있다. 배럴당 50달러 선이던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돌파해 기업의 생산비가 늘고 있다. 금리도 오름세로 돌아서 기업들의 창업과 투자를 막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새로운 산업 발전 체제를 구축하고 공습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다시 침체하는 것은 물론 아예 침몰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가 중국 기업의 공습을 막고

도약하려면 산업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 우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총 3126개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14.2%에 달한다. 한계기업 중 대기업도 460개나 된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피할 경우 산업 발전은 돈 먹는 하마로 변한다.

정부는 2015년 해운과 조산 등 일부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미봉책에 그쳐 국제경쟁력 회복이 불투명하다. 다음 필요한 것이 미래 첨단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가 자유로운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연구개발(R&D)을 국가적 사업으로 대폭 확대해 신산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교육과 직업훈련 제도를 바꾸어 첨단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 킷



털옷 입은 겨울나무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 알록달록 털옷을 입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온라인 카페 '국자인' 회원들의 솜씨다. 그들은 "내 아이를 아끼는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옮겨줄이 행복한 계절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한다. 담요를 어깨에 두른 꼬마 아가씨와 털옷을 입은 나무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온라인 모저모

9호선 罷業에 열차고장까지... "시민 불모 안돼" vs "안전 위해 지지"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인력을 총원하고 차량을 증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파업 첫날인 30일 오전 열차 두 대가 잇따라 고장을 일으키면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파업에 대한 반응도 엇갈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3분과 오전 7시 25분 두 차례에 걸쳐 김포공항역에서 신논현 방면으로 가는 급행열차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고지로 회송됐다.

에초 9호선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업체 '서울9호선운영'은 비상수송 계획을 가동,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모든 열차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열차 고장으로 열차 운행은 지연됐고, 출퇴근 시간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폭주해 혼잡도가 극심해졌다.

9호선 노조 측은 이번 파업으로 투입된 대체 인력의 업무 미숙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9호선 노조 파업에 열차 고장까지 이어지자 네티즌의 반응도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트위터 아이디 @Byul****은 "9호선은



가득이나 사람이 많은데 파업까지 하면 진짜 어떡하나. 다 좋는데 제발 시민을 불모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9호선 노조 파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반면 트위터 아이디 @lawme****은 "간만에 지하철을 탔는데 9호선 파업으로 늦었네요. 그래도 파업은 지지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니까요"라며 9호선 노조 파업을 지지했다. 네이버 아이디 'lot****'은 "9호선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파업을 통해 인력 총원, 차량 증편 등 꼭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기관사님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라며 응원했다.
이재영 기자 lij0403@

라인 세면타올

이중 파일 조직으로 제작되어 터치감이 좋은 타올입니다.

데코 세면타올

특목한 중량감과 터치감으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크로커다일 패턴 세면타올

두껍지 않아 데일리 타올로 적당하며 실용성이 뛰어난 타올입니다!

www.itowelmall.co.kr 대표번호 02) 755-1091

이슈 & 인물

“노동이사는 합법적 株主제안의 일종...지극히 市場적인 행위”

노동이사制 그리고 국민연금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상장사 社外理事 '반대' 의견 882곳 중 25곳, 2.8% 불과 '거수기' 바로잡을 勞動理事 국민연금 '찬성' 상식적 결정

'스튜어드십코드' 수년 동안 논의만 진행 중인 국민연금 社會責任투자 10년 됐지만 사실상 大型株 투자로 전락

2.8%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882곳 중 지난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한 차례 이상 표명한 적 있는 기업의 비율이다. 900개에 달하는 기업 중 25곳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서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인건에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 사외이사들은 연평균 4-7회 수준인 이사회에 참석하고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아간다. 말 그대로 '거수기(舉手機)'인 셈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경영 감시 기능을 상실한 현 사외이사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노동이사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기업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우려하지만, 아무런 감시 체계 없는 현 기업경영의 실태야말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견제 역할 할 사외이사 늘려야

- 노동이사제 도입에 제계 반발이 심한 데

“그렇듯 침소봉대(針小棒大)다. '노동이사제'라는 단어를 편협하게 이해한 것이다. KB금융 노조가 지분을 모아 주주 자격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노동이사'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주주 제안일 뿐이다. 2015년 KB금융 회장과 은행장 간 갈등으로 촉발된 'KB 사태' 당시 경제 개혁연대가 지분을 모아 추천한 사외이사 세 명이(병남, 김유니스, 박재하)는 '시민단체 이사'가 아니다. 누구든 일정한 지분을 갖고 주주로서 주주제안 요건을 갖추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특히 감시 기능을 상실한 현행 사외이사 제도하에서는 견제 위치에 설 수 있는 이사들이 많아야 한다. 상법이 개정돼 본격적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사외이사 제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이사가 얼마나 주주 보편의 이익을 추구하는가'이다. 노조가 추천하든, 시민단체가 추천하든, 특정 주주집단이나 소비자가 추천하든, 이와 상관없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해당 회사와 주주 전반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추천된 사외이사가 신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인물인지, 전문성이 있는 인물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내년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주제안할까

“국민연금이 상법 개정 전 노동이사제를 선행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변화다. 다만, 이번 KB금융의 노조 추천 이사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것과 같은 상식적인 결정은 당연할 것으로 본다. 노동이사제는 국민연금이 곧 도입할 스튜어드십코드 차원에서 당연하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내에서 흔히 '주주행동주의'로 통용되지만, 이는 너무 단순한 번역이다. 인간은 이 환경을 잠시 관리하고 살아가는 스튜어드(steward)로서 잘 보존해서 후세대에 넘겨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주인의 돈을 대신 관리하는 집사로서 주인의 필요와 원칙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日연기금 '유니버설 오너' 개념 총질

-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SRI) 어디까지와 연나

“발써 10년 정도 진행됐고, 6조3000억원 정도 SRI 유형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책임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대형주 투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 연기금은 맥킨지 등 컨설팅 기관과 함께 장기투자 철학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워크숍 등을 성사로 개최해 실제 운용에 반영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SRI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고 이후 수익률을 체크하는 것이 고작이다. SRI 위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1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사회책임투자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최소실 사태'의 단초 중 하나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행사를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권고한 인물이다. 류 대표는 “국민연금의 의견권 자문가 관인 작은 회사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여전히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의 600조 원은 1원도 소중한 돈”이라고 말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ESG(환경경영·사회책임경영·기업지배구조) 고려, 술·담배·도박 등 관련 회사 투자 제외 등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할 뿐이다. 따라서 실제 사회책임투자와 거리가 먼 운용사들도 해당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마이트어셋의 경우 SRI 위탁 운용사에 지원하면서 서스틴베스트의 ESG 자문을 받는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위탁운용사 선정 1년 후 바로 자문계약을 해지하고 자체적으로 1명의 ESG 연구원을 고용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 전문 ESG 자문회사에서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신규 채용한 1명이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란 'ESG 원칙에 맞게 장기주의 관점에서 운용하고 스튜어드십코드에 입각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투자'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사회책임투자를 못하고 있다. 책임투자 정책서와 책임투자 가이드라인부터 제정해야 한다. 특히 SRI는 국민연금이 내년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면 그 선상에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 최근 일본 연기금의 변화가 화제인데 “일본 공적연금(GPIF) 최고투자책임

자(CIO)인 미즈노 히로미치(水野弘道)를 최근 3차례 만났다. CIO 한 명의 변화가 일본 연기금의 방향을 선진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는 연기금이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라는 생각을 체화하고 있는 인물이다. '유니버설 오너란 연기금이 투자대상 기업 한 곳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오히려 이익과 비용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투자와 운용은 국민경제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연기금들은 이를 근거에 깔고 투자하고 있다. 예컨대 한전은 석탄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면 단가가 싸므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으로 1명의 ESG 연구원을 고용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 전문 ESG 자문회사에서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신규 채용한 1명이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란 'ESG 원칙에 맞게 장기주의 관점에서 운용하고 스튜어드십코드에 입각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투자'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사회책임투자를 못하고 있다. 책임투자 정책서와 책임투자 가이드라인부터 제정해야 한다. 특히 SRI는 국민연금이 내년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면 그 선상에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사회책임·장기투자 철학 CIO를

- CIO 한 명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ESG와 장기투자 등 연기금에 맞는 철학을 가진 CIO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민연금 자체가 기금 운용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한다. 현재까지는 기금운용을 자본시장 등 금융업

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도맡아 왔다. 이에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등 정량적인 수치로만 기금 운용을 구성하게 됐다. 기술적인 운용을 맡을 자본시장 운용역 외에도 실제 산업군을 잘 아는 연구진이나 자문역들이 대거 들어와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웹사이트에서 산업군에널리스트들이 관련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각 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연금에 포진해야 한다.”

- 금융위국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를 10%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투자비용 목표를 설정한 발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국민연금이 코스닥시장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겠다는 식의 발표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투자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량적인 목표의 금융위 발표가 나와서 사실상 제대로 된 소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유니버설 오너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해야 장기 수익률도 상승한다. 그렇다면 연금은 결국 커나가는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히든챔피언으로 선별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정다운 기자 gamia@

“국민연금은 '캐첩 투자' 하고 있다"...'금융의 판짓' 비판

류영재 대표는 지난 9월 영국의 경제학자 존케이의 책을 번역해 출간했다. 원제는 '타인의 돈(Other People's Money)'이지만 '금융의 판짓'으로 제목을 바꿔 내놨다. 타인의 돈을 신의와 충실로 지켜야 할 금융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잘못된 관행과 문화 이기적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측면에서 류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 역시 '캐첩투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래리 서머스가 설명한 캐첩 경제학과 토마토 경제학을 빗댄 것이다. 캐첩시장을 분석할 때 경제학자들은 캐첩 500g 가격이 1000원일 때 1kg 가격이 2000원인 시장은 효율성이 있다(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기계처럼 분석한다. 반면 토마토 경제학은 단순히 양과 가격의 관계만이 아니라 캐첩 가격을 결정하는 토마토와 대체재 시세, 노동비용, 소비자 소득 추이 등 수요와 공급 요인을 총괄한 입체 분석을 말한다.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중시하는 현재 국민연금 투자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다. 류 대표는 이달부터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위원을 맡아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에 자문을 주고 있다.

이투데이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경주,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본사, 기업금융부, 자본시장부, 사정팀, 광고접수, 구독신청, and a list of phone numbers.

Advertisement for '2030을 위한 부자 내비게이션' (Navigation for becoming a rich parent by 2030). Features a house icon and the slogan '월급으로 내 집 장만하기' (Buying a house with a salary). Includes a smartphone mockup showing the app interface and a list of hashtags: # 27세에 집 2채, 상가 1채 주인이 되다! # 나를 살게 해준 건 월급,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건 월세 # 월급으로 집을 사는 방법, 부자가 되기 위한 정신무장법,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

“脫석탄·脫원전, 세계 에너지산업의 흐름”

베노이트 라클라우 EY글로벌 발전·유틸리티 섹터 리더

베노이트 라클라우(Benoit Laclau·사진) EY글로벌 발전·유틸리티(Power and Utility) 섹터 리더는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제 에너지 산업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최근 에너지산업이 고민하는 세 가지는 탈석탄, 수급 안정성, 가격 등이다. 이런 이유로 소형 발전기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신재생, 디지털화로 나아가는 중이다.

원전 역시 후쿠시마 사태 등을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우에 이어 올해 포함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국제사회가 원전 안전 관련 규정 적용을 확대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비용은 점차 높아지고 투자 회수 기간은 짧아졌다.

후쿠시마 사태後 신규 원전 줄어 태양광·풍력 新재생 에너지 확산 정부, 분산 에너지정책 설계해야

그는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효율이 좋다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발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산업은 석탄, 석유 등 기존 에너지원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중심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발전이 이 같은 현상의 가속화를 돕고 있다.

더불어 베노이트 리더는 중앙 발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을 이용한 분산형 에



너지 사업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패널 등이 곳곳에 설치된 점을 비롯해 모든 에너지가 연결돼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네트워크, 스마트 미터링(Smart metering) 기술이 가능해진 것이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분산형 에너지는 발전산업의 디지털화와 맞물려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미국은 이번 허리케인 사고를 겪으면서 중앙 집중식 발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드러나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노이트 리더는 “특정 지역이 재해로 인해 에너지 공급이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지역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정부가 분산 에너지에 대한 정책 설계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정책, 배터리 등 저장 장치의 보급 방법, 분산형 에너지 산업의 성장 목표 등에 대한 정확한 비전 제시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세금 정책과 소비자의 투자 독려를 이용하여 확대 속도를 높였다”며 “세계 태양광 패널의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독일 또한 조장기에는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었다”고 강조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박삼구 회장, 령춘잉 中 副주석 만나

(정협)

韓中 민간 교류 방안 논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중국 부총리급 인사를 만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 회장이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평양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기 위해 한국에 온 령춘잉(梁振英)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부주석(부총리급)과 만나 담소를 나눴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령 부주석과 한중 민간 교류 활성화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현재 한중우호협회의 회장

을 맡고 있다. 1982년 설립된 한중우호협회는 중국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양국 간 민간교류를 넓히기 위해 외무부(현 외교부)의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협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중국전문 기초초장학회 △중국대학생한국어말하기대회 △한중일캠퍼스하모니 △수교기념음악회 △한국고등학생중국어말하기대회 등이 있다.

령 부주석은 2012년 7월부터 5년간 홍콩 행정관공을 지냈으며 3월부터 정협 부주석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오늘 밤 12시 러시아 월드컵 조추첨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운명을 가를 조 추첨 행사가 1일 자정(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신태용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김남일 코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박지성 축구협회 유소년본부장 등이 조 추첨 행사장을 찾는다.

이번 월드컵 조추첨 행사에는 디에고 마라도나, 카푸, 카를레스 푸울, 파비오 칸나바로, 디에고 포를란 등 축구 레전드들이 추첨자로 나선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을 10월 FIFA 랭킹에 따라 8개팀씩 4개 포트로 분산했다. 개최국 러시아는 FIFA 랭킹 1~7위의 팀과 함께 1번 포트에 배정됐다.

한국은 10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62위에 그쳐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중 사우디아라비아(63위)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가 낮아 4번 포트에 포함됐다.

이재영 기자 iijy0403@

서정진 회장 “성공하려면 전문성·인간성 갖춰야”

(셀트리온)

한양대서 사업가 숨은 비결' 특강 복 받을 것 하면 위기때 도움 받아



“성공의 필요조건이 전문성이라면 충분조건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으로 대한민국 주식 갑부 대열에 이름을 올린 '자수성가형 경영영자' 서정진(61·사진) 셀트리온 회장은 30일 한양대에서 열린 '성공한 사업가의 숨은 비결' 특강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됨으로

써 '복 받을 것' 하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변의 도움이 있다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친구

가 선뜻 15억 원을 내준 것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 위기감이 조성됐을 때 외국 투자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낸 것도 그들이 자신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서 회장은 “실력이 있어도 특출한 처

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남의 장점을 칭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물론 운이 따라준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서 회장은 전 세계 어디에나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학·의학, 생명공학 지식이 전문화된 서 회장은 독학으로 제약업계에 필요한 전문성을 쌓았다. 약학 논문을 찾아 읽었고, 일대일로 해부학 수업도 들었다. 전효준 기자 gradually@

故 이일규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

대법원은 1일 효암 이일규 제10대 대법원장의 서세(逝世) 10주기를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추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4명의 전임 대법원장, 운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전·현직 대법관, 원로 법조인, 이 전 대법원장의 차남인 이장구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 등이 참여해 효암의 넋을 기린다.

이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의 기틀을 확립하는 등 일찍이 그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효준 기자 js62@

인사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류정섭 △기획조정실 서기관 한정희

◆고용노동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영미 △강원지방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 민길수

◆외교부 △G20 세르파(정상회의의 조율 담당관) 최경림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수자원 정책국장 박재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이간정

◆기상청 △감사담당관 김용하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 담당관 임하수 △운영지원과장 최재성 △산불방지과장 박도환

◆대림산업(승진) △부사장 김길수 △전무 최삼섭 홍범락 박기순 △상무 김원근 이종태 박수원 이세현 김홍태 양철원 이용상 김승구 서영훈 배영민(신규 선임) △상무보 임재현 백준규 최택용 이태연 백중석 이문영 김도형 유영광 이현동 강경중 정기형 송예현 박근창 손승현 주성태

◆대림코퍼레이션(신규 선임) △상무보 김차모 김석희 김원권

◆삼호(승진) △전무 김원태 △상무 전택희

◆고려개발(승진) △상무 이수남(신규 선임) △상무보 한정우 유성식 홍태용 장진식 서규찬 정주동

◆오라관광(승진) △전무 박명신

◆대림C&S(신규 선임) △상무보 김용대

◆대림에너지(신규 선임) △상무보 김중오

◆이수그룹(대표이사 선임) △씨아이 대표이사 황엽 이수진 대표이사 제민호 이수정 임두자 대표이사 이희섭(부사장 승진) △이수페타시스 관리본부장 김대성 △이수페타시스 공장장 서영준 △이수엠지스 대표이사 이석주 △이수AMC 대표이사 최상호(전무 승진) △이수시스템 대표이사 김용하(상무 승진) △씨아이 경영개선팀장 이영태 △씨아이 HR·브랜드담당원 임태기 △이수페

타시스 기술연구소장 이경수 △이수페타시스 기획담당원 겸 사업기획팀장 조준의 △이수시스템 솔루션사업본부장 손원동(상무보 승진) △이수화학 생산 담당원 최수현 △이수화학 중국법인(Taicang) 총경리 성일재 △이수엠지스 연구소장 배동규 △이수페타시스 중국법인(Hunan) 재무총괄 박재민

◆신세계(부사장 승진) △영업본부장 조장현(부사장보 승진) △상품본부장 손문국(상무 승진) △본점장 김낙현 △영등포점장 이동훈 △디지털노베이션 담당 조우성(상무보 승진) △영업전략담당 박순민

◆이마트(부사장보 승진) △상품본부장 김홍규(상무 승진) △인사담당 김맹수 △재무담당 김석봉 △미국법인장 김수완 △MSV담당 이내욱 △홍보담당 이말수 △트레이더스상품담당 이형철(상무보 승진) △MD전략담당 김성태 △해외소싱담당 김태우 △점포운영담당 박승학 △품질관리담당 이해주 △가공식품 B담당 전진홍 △헬스&뷰티담당 정경아 △서비스영업담당 최현철

◆세븐일상권(부사장 승진) △세븐일 상권 최우정(상무 승진) △세븐일 상권 관리담당 강영태

◆신세계인터내셔널(상무보 승진) △기획담당 박승석 △2사업부장 이수용

◆신세계푸드(상무 승진) △인사담당 김석순 △관리담당 김철수

◆신세계건설(대표이사 내정) △레저 부문 대표이사 양춘만(부사장보 승진) △공사총괄 겸 공사담당 문길남(상무 승진) △QSE담당 민일만 △영업2담당 오상근(상무보 승진) △지원담당 김정선 △레저부문 골프장담당 서화영 △기전 담당 윤석희

◆신세계I&C(상무 승진) △밸류서비스 사업부장 곽학봉 △지원담당 김승현(상무보 승진) △IT01담당 정아름

◆스타벅스커피코리아(부사장보 승진) △지원담당 정철욱

◆신세계조선호텔(대표이사 내정) △대표이사 이용호(상무보 승진) △식음기 획담당 김범수 △지원담당 임영준

◆신세계사이먼(상무보 승진) △지원 담당 송정섭

◆신세계L&B(상무보 승진) △지원담당 이상호

◆이마트에브리데이(상무보 승진) △지원담당 배정환 △매입담당 홍호림

◆이마트24(상무보 승진) △개발1담당 김대식 △MD담당 진영호

◆신세계DF(상무보 승진) △물류담당 민병도

◆신세계TV쇼핑(상무보 승진) △미디어담당 도정환

◆신세계프라퍼티(상무 승진) △개발 담당 이형철 △지원담당 전정진(상무보 승진) △점포기획담당 기인주

◆센트럴시티(상무 승진) △개발담당 이형철(상무보 승진) △지원담당 남윤용

◆신세계그룹 전략실(부사장보 승진) △기획총괄 이주희(상무 승진) △재무팀장 우정섭 △총무팀장 장재훈(상무보 승진) △운영팀장 박한경

◆LG(승진) △부회장 하현희 △전무 노진서 △상무 최정웅 송찬규(이동) △전무 정현옥 △상무 박치현

◆LG전자(사장 승진) △HE사업본부장 권봉서 △B2B사업본부장 권순환 △CTO 겸 SW센터장 박일평(부사장 승진) △리빙에플라이언스사업부장 류재철 △세무총괄그룹장 배두용 △중남미지역 대표 겸 브라질법인장 변창범 △한국모바일그룹장 이상구 △특허센터장 전생규 △생산기술원 장비그룹장 겸 공정장 비담당 정수화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조주환 △MC사업본부장 겸 융복합사업개발센터장 황정환(전무 승진) △H&A부품솔루션사업부장 김광호 △HE연구소장 남호준 △디자인경영센터장 노창호 △H&A스마트솔루션사업부장 류해정 △CHO 박철웅 △글로벌생산 부문 기획담당 박병구 △VC.그린연구담당 손병준 △H&A/VC.그린구매담당 왕철민 △TV/모니터생산담당 이병철 △제조/개발역량강화센터장 이승익 △호주법인장 이영익 △마나우스생산법인장 이진 △에플라이언스연구소장 정성해 △HE모듈구매담당 정의훈 △MC단

말사업부장 하정옥 △HE기획관리담당 하진호(상무 승진) △청원지원담당 권순일 △러시아생산법인장 김영남 △회계담당 김민호 △ID 해외영업담당 김동필 △솔라영업Task리더 김석기 △세탁기연구개발담당 김영수 △MC TMUS KAM 담당 김태원 △노디다생산법인장 김태완 △한국전략유통담당 김필준 △베네룩스지점장 김형수 △융복합사업개발센터 인공지능개발실장 노규찬 △미국법인 HA신사업PM 노숙희 △MC상품기획담당 박희옥 △RAC연구개발담당 배정현 △HE중남미영업담당 백관현 △태주 생산법인장 변희석 △소재/생산기술원 제어계측담당 양희규 △생산기술원 제품품질연구소장 오상진 △MC QE담당 오성훈 △VC ADAS개발담당 윤정석 △VOC CID/클러스터개발담당 이광재 △경영전략담당 이범철 △소재기술원 광학 연구소장 이승규 △HE유럽/CIS영업담당 이윤석 △에어케어사업실장 이종호 △푸네생산법인장 장희철 △레반트법인장 전홍주 △마그레프법인장 정필민 △컨버전센터 카메라선행연구소장 지석만 △디스플레이사업실장 최성봉 △인재육성 담당 최여원 △한국유통지원담당 최영일 △SW센터 산하 최희원 △철레퍼먼팅장 하동욱 △프나미법인장 허순재 △SW센터 SW 플랫폼연구소장 홍성표 △노르딕지점장 앤드루 맥케이 △모니터개발실 산하(수석연구위원) 이병철 △TV제품개발실 산하(수석연구위원) 이형일

◆LG경영개발원(부사장 승진) △김영민(LG경제연구원 부원장) 윤희원 △상무 송민환(이동) △사장 조준호(LG인화원장)

◆LG화학(사장 승진) △중앙연구소장 노기수(부사장 승진) △ABS사업부장 정찬식 △재료사업부장 유지영(수석연구위원(부사장) 승진) △중앙연구소·미래기술연구소 이진규(전무 승진) △PVC/가소제사업부장 이종구 △자동차전자·개발센터·Cell개발담당 최승돈 △소형전자사업부장 김동명 △디스플레이재료사업부장 홍영준 △중

다, 이날 행사에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허동수 공동모금회장, 가수 현숙, 배우 김보성·정보서 등 회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30일 기준으로 회원은 1666명, 누적 기부액은 약 1831억 원이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10주년... 총 1831억 기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아너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 나눔공로상을 수상했다.

1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인 아너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

다. 이날 행사에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허동수 공동모금회장, 가수 현숙, 배우 김보성·정보서 등 회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30일 기준으로 회원은 1666명, 누적 기부액은 약 1831억 원이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부음

◆중앙미디어네트웍스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법무담당(상무보 선임) 강종호 △전략담당 홍정인 △신사업추진단 부단장 겸 사정보좌담당 이재원 ◇중앙일보 △경영기획팀지원총괄 박의준 △광고사업본부장(상무보 선임) 정선구 △칼럼리스트·대기자(국제담당) 배명복 △근거리장 김정환 김중우 윤수영 전상인 조원호 최영근 △상무 박경수 박우석 박진남 신순범 이동은 이부열 이혜철 조창욱 진두중 최창섭 최정훈 허연호 △수석연구위원 전병철 배효태 한창욱

◆LG이노텍(승진) △전무 문희수 △상무 조지태 △수석연구위원(상무) 김영운(전임) △전무 이득중

◆LG하우시스(대표이사 선임) △자동차소재부품 사업부장 민경집(전무 승진) △창조 사업부장 황진형 △표면소재 사업부장 김신우(상무 신규선임) △한국영업·특판담당 이대욱(수석연구위원(상무급) 신규선임) △자동차소재부품·복합재 연구PIJT 김희준

◆LG플러시스(전무 승진) △홈미디어 부문장 송구영(상무 신규선임) △PS부문 고객서비스그룹장 장상규 △PS부문 PS영업그룹 강복영담당 최승오 △기업부서 사업사업부 e-Biz사업담당 남승환 △기업부서 사업사업부 유선사업담당 박성률 △FC부문 기술개발그룹 IoT개발담당 서재용 △NW부문 NW운영기술 그룹 서비스담당단 인현철 △CRO UX센터장 김지혁 △CFO 업무혁신IT담당 김재용(상무 전임) △IoT부문 홈IoT상품담당 이재원

◆LG CNS(계열사 전임) △미래전략 사업부장 사장 백성업 △CTO 전무 현신균(상무 신규선임) △인프라서비스팀 양재권 △스마트팩토리솔루션사업팀장 정민민 △CNS 아키텍처담당 김선정 △스마트물류사업팀장 수석연구위원 이발술

◆LG생활건강(전무 승진) △CRO/소비자안심센터장 류재민 △정도경영부 문장 서동희(상무 신규선임) △홈케어 사업부장 김규원 △후 한방연구소장 송영숙 △코카콜라음료 사업혁신본부장 권해욱

◆김용길씨 별세, 수영(한양여대 교수)·수철(CJ제일당 상무)·연수씨 부친상 = 30일, 고대안암병원, 발인 2일 오전 10시, 02-923-4442

◆이유희씨 별세, 박영민(전 MBC 논설위원)·영주·영일씨 모친상, 송영각(신동해미갈 대표이사)·안승만(개인사업)씨 장모상, 홍은희(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씨 시모상 = 30일, 일산백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 30분, 031-910-7444

◆안진순(전 보성고 교장)씨 별세, 미라·미현(서울신문 편집국장 부국장·경제정책부장)·익현(해솔스포츠 대표)씨 부친상, 정지숙씨 시부상 = 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02-2227-7587

◆곽남순씨 별세, 황재길·재범(이산 부사장)·재홍·재성(동아일보 경제부장)·길자·수자씨 모친상, 김중규·석현씨 장모상 = 30일, 고대안암병원, 발인 2일 오전 5시 30분, 02-923-4442

◆하홍식(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씨 별세, 박옥희씨 남편상, 송수·성민·송운씨 부친상, 홍순호(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과장)씨 형님상 =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3410-6903

◆이주호씨 별세, 진국(하나금융투자 사장)씨 부친상 = 1일 오전 1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02-3410-3151

짜릿한 질주... 흥겨운 쇼...
올겨울도 내 국적은

雪國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스키 시즌 스타트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 스키장들은 스키어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슬로프를 확대 개방하는가 하면 평일 퇴근 후 스키를 즐기는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스키장도 속속 문을 열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있는 만큼 스키와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달 KTX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강원권 스키장 접근성도 좋아졌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설원을 질주하며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장으로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국내 대표 스키장 4곳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하이원리조트 스키장

◇국내 최대 슬로프 자랑하는 용평리조트 스키장... KTX 경강선 개통으로 접근성↑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리는 용평리조트는 초급자 코스인 옐로, 핑크 슬로프부터 중상급자 코스인 레드, 골드존을 모두 오픈했다. 2일엔 메가그린 슬로프를 오픈할 예정이다. 단 레인보우와 실버 슬로프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위한 연습용과 실제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올 시즌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슬로프는 시즌 내내 이용 가능하다.

올해로 스키장 개장 42주년을 맞은 용평리조트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한 데 이어 이달 KTX 경강선이 신규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KTX를 타면 서울에서 90분이면 갈 수 있다. 동계 시즌 동안 정차역인 진부역에서 무료 셔틀을 운행할 계획이다.

◇초보자도 정상에서부터 즐길 수 있는 하이원 스키장... 설상차 투어·불꽃쇼·콘서트 등 즐길거리 가득 = 하이원스키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백운산 자락 해발 1340m 높이에 있다. 총 길이가 21km에 이르는 18면의 슬로프는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돼 골라 타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하이원은 초보자 코스(약 4km)도 정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초보 스키어들도 겁없이 펼쳐진 겨울 산을 감상하며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올해 하이원 즐길거리의 하이라이트는 설상차 투어다. 설상차는 슬로프 정비용 차량으로

용평리조트 스키장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장
제2영동고속도로·KTX 접근성 극~

하이원 스키장
총 21km 18면 슬로프 난이도 다양해
매주 토요일마다 화려한 공연 펼쳐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눈놀이
신개념 스노파크 '스노워랜드' 오픈

엘리시안 강촌
ITX 청춘열차 타고 '약 1시간' 거리
신용카드 제휴 통해 최대 60% 할인

여기에 탑승용 케빈을 장착해 특수 개조했다. 이 차량을 타고 1시간가량(8km 코스) 스키장 곳곳의 빼어난 설경을 즐길 수 있어 친구·가족과 함께 색다른 겨울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매주 토요일 불꽃쇼가 펼쳐지며 난타와 댄스, 퓨전국악 등 화려한 공연도 마련돼

볼거리도 가득하다.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눈 놀이 테마파크 = 비발디파크는 22일 발라드 슬로프 1면을 오픈하며 올해 스키시즌을 시작했다. 발라드 슬로프는 길이 480m, 최대폭 150m의 초급자 코스이며 스키, 보드 이용객이 가장 많이 찾는 슬로프다. 발라드 리프트는 전면 추락 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해 어린이 전용 리프트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블루스(초급), 발라드(초급), 제즈(중급), 테크노(상급) 슬로프 4면을 열어 정상 운영 중이다. 올 시즌에는 외국인 스키 관광객을 위해 전용 서비스를 강화했다. △외국인 전용 무료 셔틀버스(명동, 동대문, 도심공항 탑승) △외국인 전용 콜센터 및 현장 투어리스트 센터 운영 △외국인 전용 렌탈 존 운영 △온라인 원스톱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는 눈 놀이 테마파크 '스노워랜드'를 이달 중순 오픈할 예정이다. 매봉산 정상에 펼쳐진 독립된 공간에서 온 가족이 함께 눈, 썰매, 빛을 즐기는 새로운 개념의 스노 파크다. 4만6000㎡(약 1만4000평) 면적에 썰매 존, 눈사람 존, 풋볼 거리 등 14개 시설이 설치돼 있다. 주요 액티비티 시설은 튜브 썰매, 래프팅 썰매, 스노 모빌 래프팅 등이 있으며 야간에는 눈꽃터널과 풋볼 거리로 로맨틱한 공간을 연출한다.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국내 유일 스키장 엘리시안 강촌... 다양한 할인 이벤트로 경제적 부담 ↓ =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 타고 가는



엘리시안 강촌



용평리조트 스키장

스키장'으로 잘 알려진 엘리시안강촌 스키장은 지난달 24일 시즌 개장했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ITX 청춘열차를 이용하면 약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수도권 무료 셔틀버스 역시 20개 노선 110개 정류장을 상시 운행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직접 치러지지는 않지만 올해 겨울 스포츠의 이용 수요 확대를 고려해 시설, 프로그램,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각종 부분을 업그레이드했다. 안전과 편의를 위해 초보자 슬로프에 무빙워크를 추가 설치했고, 외국인 고객이 늘자 할랄 음식을 판매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스키장 이용료가 비싸다는 인식을 바꾸고자 신용카드 제휴 할인을 비롯해 야간과 심야, 백야 스키에는 리프트와 장비가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며 최대 60%까지 할인해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엘리시안강촌 스키장은 아이들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빠르게 마스터할 수 있게 하는 키즈 스키스쿨도 운영한다. 키즈 스키스쿨 숙성과정에 등록하면 강습은 물론 리프트, 장비 렌탈, 중식 등 모든 일정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다. 김민정 기자 mj@

날씨와 생활

越冬 준비 마치고 雪景 찾아 산 타볼까

추위에 체력 소모 심해 만반의 준비 필요
블랙야크 '헤비 구스다운' 체온 유지 효과
등산화 '퀵템 GTX' 보행 환경 최적화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첫눈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겨울 산행을 계획 중인 등산객들이 늘고 있다. 겨울 산행은 추운 날씨와 큰 일교차로 체온 변화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끄러운 눈길로 인해 체력 소모가 심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는 겨울철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도와줄 스마트한 제품을 선보였다.

헤비 구스다운 'B5XT7자켓W'가 대표적이다. 이 재킷은 등산객 몸에 최적화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GPS 기반으로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장소의 날씨 등 외부 조건에 따라 발열 재킷의 온도를 조절하는 '야크온H' 기술이 적용돼 있



블랙야크 헤비 구스다운 'B5XT7자켓W'.

다. 여기에 방풍성과 투습성을 자랑하는 윈드스토퍼(바람 막이) 소재가 적용돼 칼바람을 막고 보온성을 더 높여준다.

재킷만큼 중요한 아이템은 바로 등산화다. 등산화는 산행 시 발을 보호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해 안전한 산행에 필수 아이템이다. '퀵템GTX'는 고어텍스를 적용해 발이 눈에 젖지 않도록 보호하며 투습 기능을 통해 최적의 보행 환경을 만들어준다.

아이젠도 미끄러움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블랙야크는 등산화 및 장화에 아이스 그립 기능을 넣어 겨울 등산 시 위험 요소를 배제했고 등산화와의 접촉을 강화한 아이젠 '야크체인2'를 추천한다. 머리와 귀를 감싸주는 고소모 제품도 눈에 띈다. 추운 날씨에 산행할 때는 머리와 귀만 충실하게 보온해도 체온 급감을 방지할 수가 있다. 고어피크고소모는 귀달이 부분에 퍼(fur)가 있어 머리와 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으며 재귀반사와 펜으로 야간 산행 시 안전까지 고려한 제품이다. 재귀반사는 입사한 광선을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 야간 활동에 적합한 기능이다.

블랙야크 관계자는 "겨울은 다른 계절과 달리 전혀 다른 의류와 장비가 준비돼야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만큼 보온부터 미끄러움 방지까지 기능성이 뛰어난 아웃도어 제품을 갖춰야 한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능성을 발휘할 블랙야크 추천 제품을 통해 등산객들이 설산을 만끽하며 안전한 겨울 산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상품의속살

찬바람 불 땀 땀 끈한 밀크티에

공차코리아, 밀크티 3종·밀크폼 얼그레이 슈폰 3종 출시
프리미엄 잎차 깊은 맛과 부드러운 우유의 환상적 조화



부드러운 슈폰 케이크...딱 좋아!

최근 커피전문점에서도 티 메뉴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시원한 밀크티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생겨나는 등 밀크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공차코리아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프리미엄 잎차의 깊은 맛과 부드러운 우유 맛이 어우러져 차갑게 즐기는 것은 물론, 따뜻할수록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밀크티를 공차만의 노하우를

담아 '따뜻한 밀크티' 3종과 '밀크폼 얼그레이 슈폰' 3종을 선보였다.

이번 신메뉴는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것으로 따뜻하게 즐기면 더욱 좋은 밀크티다. 베스트셀러 밀크티 3종 위에 조화로운 플레이버 폼(Flavor Foam)을 얹어 한 잔으로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으며, 밀크티와 플레이버 폼의 독특한 컬러 매치가 눈길을 끄는 것이 특징이다.

'따뜻한 밀크티' 3종은 플레이버 폼이 따뜻한

밀크티 위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며 맛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말차폼 초콜렛 밀크티'는 달콤한 초콜렛 밀크티에 제주산 유기농 녹차가루로 만든 씹살한 말차폼을 올려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초콜렛 밀크티의 브라운과 녹차의 그린 컬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준다.

'워터폼 블랙 밀크티'는 프리미엄 잎차로 직접

우려 잎차 본연의 맛을 내는 블랙 밀크티에 구수하고 달콤한 워터폼 밀크티로 만든 워터폼을 올렸다. 또한 '초콜렛폼 타로 밀크티'는 고소한 타로 밀크티에 달콤한 초콜렛폼을 올려 환상적인 컬러 조화를 선사한다.

공차코리아 마케팅팀 김지영 이사는 "신제품 '따뜻한 밀크티' 3종은 지난해 출시됐던 '티 리메' 4종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 판매량이 130% 정도 늘어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따뜻한 밀크티' 3종을 디저트로 재해석한

'밀크폼 얼그레이 슈폰' 3종도 선보여 프리미엄 얼그레이 찻잎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부드러운 슈폰 케이크에 플레이버 밀크폼을 얹어 더욱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포근한 크림이 슈폰 케이크 위에 내려앉은 듯한 모습으로 겨울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해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졌다. '말차폼 얼그레이 슈폰'은 제주산 유기농 녹차로 만든 씹살한 말차폼을 더했으며, '초콜렛폼 얼그레이 슈폰'은 달콤하고 깊은 맛의 초콜렛과 얼그레이향이 어우러지는 제품이다. '워터폼 얼그레이 슈폰'은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의 워터폼을 더하여 고소한 맛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아시아 그래미?
아직 갈 길 먼
MAMA**



CJ E&M이 주관하는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이하 MAMA)'는 한국의 그래미를 꿈꾼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두루 갖춘 아시아 대표 음악 축제를 만들겠다는. 하지만 올해도 'MAMA'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별들의 잔치? 상들의 잔치='MAMA'에는 트로피가 많다. 대상만 세 개(올해의 노래/가수/음반)에, 같은 성격을 가진 상도 이름을 달리해 여러 명에게 수여한다. 걸그룹 프리스타인이 가져간 신인상과 가수 정하가 받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Next)상이 어떻게 다른지, 아직도 미궁 속이다. 매년 듣도 보도 못한 트로피가 추가되기도 한다. 올해에는 '인스피어드 어치브먼트(Inspired Achievement)'를 신설해 일본 걸그룹 AKB48 등을 제작한 프로듀서 아키모도 야스시에게 시상했다.

열심히 활동한 이들이 칭찬받는 건 물론 기쁜 일이다. 하지만 트로피의 개수가 시상식에 참석한 가수의 수만큼 많다면 권위를 기대하긴 힘들다. 그래미의 트로피 개수는, 팝 가수들이 열심히 활동을 안 했기에 적은 건가? 아닐 것이다.

◇중국이 甲이다=이달 초 온라인 투표를 위한 공식 웹페이지를 개설한 'MAMA'는 홍콩·대만·마카오를 중국이 아닌 각각 다른 국가로 배치했다가 혼쫓아 냈다. 중국인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MAMA' 보이콧 운동을 벌였고 'MAMA' 측은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大賞만 3개...상들의 잔치' 빈축
온라인 투표 놓고 中보이콧 사태
공연 돌연 취소하고 해명도 없어
"잘못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나눌 수 없다는 원칙. 중국이 과거 쓰위에게 그랬듯 "MAMA가 해당 국가들을 따로 표기한 것은 이들의 독립을 지지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

김현수 국장은 "우려에 동감한다"며 "진정성을 갖고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성'보다 시급한 건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이다. 적어도 '아시아' 음악 축제를 만들고 싶다면 말이다.

◇그래서, 태연에겐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지난해 '연결'을 테마로 내세웠던 'MAMA'는 태연과 위즈칼리파의 합동 무대를 예고했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취소해 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방송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입을 연 건 주최 측이 아니라 당사자인 위즈칼리파와 태연이었고 그들의 말은 서로 엇갈렸다. 솔한 비난과 추측이 쏟아지는 동안 'MAMA'가 밝힌 입장은 "확인 중" 이 한마디뿐이었다.

'MAMA'의 '확인'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호소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을 뿐이다. 누군가는 보호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화를 냈다. 하지만 누구도 충분히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합동 무대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는 저절로 용서받는 걸까. 흠을 감추면 흠이 없는 것이 되는 걸까. 'MAMA'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책임감'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제공 JYP엔터테인먼트

솔로음반 '나의 20대' 발표한 2PM 준케이

**미니홈피 뒤적이며 곡 작업
서른살 준케이의 '젊은 날 초상'**

그들 2PM의 멤버 준케이(27)는 얼마 전 자신이 20대 시절 미니홈피에 적어 둔 글을 다시 읽었다. 새 솔로음반 '나의 20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20대의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되돌아보며 곡을 만들고 가사를 썼다.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갔다"는 지난 10년 동안 준케이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 지난해 첫 솔로 음반을 낼 당시 A&R 팀을 설득해 당신이 원하는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밀어붙였다고 들었다. 올해는 어땠나.

"국내에는 생소한 장르였다. 도전적인 일이었지만 그땐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게 먼저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살장으로 와 닿지 않았다. 좋은 것인데 안 좋은 것인데 경험해서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 가장 큰 깨달음은 뭐였나.

"2012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제일 친한 친구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그땐 '부모님에게 잘해야 한다'는 친구 얘기가 막연하게 들리기만 했다. 그런데 내가 겪고 나니, 나도 후배나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아프고 힘든 순간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 당신이 20대에 겪은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KBS2 드라마 '드림하이'(2011) OST로 작곡가 데뷔를 했을 때다. 사실 어린 시절 내 꿈은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산 화성학 책으로 독학을 했는데 전혀 모르겠더라. 처음 내 노래를 내던 날, 그때가 떠오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당신이 쓴 '미친 거 아니야'(2014)가 2PM 음반의 타이틀곡으로 낙점되기도 했다.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울기도 했다.(웃음)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집안의 반대가 심했는데 그때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분이 어머니다. 숙소에서 택연이와 같은 방을 쓰는데, 내가 작업하는 소리 때문에 택연이가 고생을 많이 했다."

- 내년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팀 활동은 어떻게 되나.

"이르면 내년 초, 혹은 중순에 입대할 것 같다. 2PM 멤버들 역시 순서대로 입대한다. 모두 제대하고 나면 다시 2PM으로 활동하기로 약속했다.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지만 설령 멤버 한두 명이 제계약하지 않더라도 2PM은 계속 지켜나가자고 했다."

- 군 제대 이후 준케이는 어떤 가수가 되어 있길 바라나.

"요즘엔 '어떤 가수가 될까'보다 '어떻게 살아갈까'가 더 고민이다. 가족, 2PM,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음악에 대한 간절함이 나로 하여금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그것이 사라진다는 걸 느껴서 간절했던 순간을 자주 끌어내려고 한다."

이은호 기자 wild37@

**그리운 아버지, 고마운 어머니
음악에 대한 열정과 욕심...**

**20대 떠나보내는 아쉬운 답아
대중과 소통하는 앨범 땀으면**

내년 초·중순께 늦깎이 입대...

제대 후에도 2PM 활동 계속할 것

번에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쓰려고 했다.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

- 타이틀곡 '이사는 날'은 이별의 상황을 그린 노래지만 20대를 떠나보내는 사회로 읽히기도 한다.

"둘 다 될 수 있는 거 같다. 최근 이사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봤다. 내가 살던 흔적이 사라지는 게 마치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시렸다. 동시에 새 집으로 가는 설렘도 표현하고 싶었다."

- 당신의 20대는 어땠나.

"걱정이 많았던 것 같다. 2PM으로 데뷔해 활동하는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내 음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 이전 여유를 찾았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많다. 선배나 부모님이 내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는데, 경험을 하기 전에는

"코리안 인베이전"... 美 젊은이들은 왜 방탄소년단에 열광할까

신곡 'DNA' 빌보드 메인 음원 차트 67위
아메리칸 뮤직어워즈 한국가수 첫 공연
NBC '엘런쇼' 등 방송 러브콜도 잇따라
**'트렌디한 음악·매력적 퍼포먼스' 인기비결
젊은 층에 건전한 메시지... 좋은 영향도**

영국 록 밴드 비틀스가 미국과 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1960년대, 관계에서는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타국 가수에게 쉽게 순위를 내주지 않던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영국 밴드의 노래가 대거 이름을 올리며 생겨난 말이다. 장벽의 공고함이 그것을 깨뜨린 가수의 위대함을 역설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최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일대에서 보인 활약을 떠올리면 '코리안 인베이전'이라는 설명이 과하지 않게 느껴진다. 10대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올해 9월 발표한 신곡 'DNA'로 빌보드 메인 음원 차트인 '빌보드 핫 100'에 67위로 올라가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어로 발표된 노래 가운데 최고 진입 성적이다. 'DNA'가 실린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 역시 메인 음반 차트 '빌보드 200'에 6주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현지 팬들의 성원은 방탄소년단이 미국 시상식 방송 무대로 올려 놓았다. 방탄소년단은 이달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중 처음으로, 아시아 가수 중 유일하게 공연했다. 시상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방탄소년단은 NBC '엘런 드제너러스쇼'를 비롯해 현지 3대 지상파 방송사 간판 토크쇼에 출연했고, 이때마다 현장에는 구름떼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최근에는

ABC 신년맞이 특집방송 '딕 클라크스 뉴 이어즈 로킹 이브(Dick Clark's New Year's Rockin' Eve) 2018'에 출연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방탄소년단을 제작한 방시혁 프로듀서는 팀의 성격에서 인기 요인을 찾았다. 그는 "방탄소년단 데뷔 초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신이 바라보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것이 디지털라이즈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되며 오늘의 인기를 얻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미국 팝시장이 방탄소년단을 10대 팝스타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렌디한 음악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젊은 층에 건전한 메시지를 선사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방탄소년단의 결정적인 소구력으로 꼽았다.

미국 내 방탄소년단 팬들의 '화력'은 방탄소년단의 시장성에 불을 붙였다. 이들은 라디오 방송사에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재생해 달라고 요청하고 빌보드 소셜 차트 등 각종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에 투표한다. 이들의 움직임은 국내 팬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이고 전라적이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측은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새긴 핀과 패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해당 굿즈 상품은 수십만 개씩 팔려 나갔다. 재고가 없어 지금 주문해도 1월 말에야 출고 가능한 상태다.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새로 발표한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 버전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자레드 레토, 칼리드, 체인스모커스 등의 팝 가수들은 SNS에서 방탄소년단을 언급한다. AMA의 말마따나, 코리안 스타가 아닌 월드와이드 슈퍼스타의 탄생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SBS '사랑의 온도'를 통해 주연으로 성장한 양세준이 표현과 소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 작품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사진제공 곤피플

연기하며 연애 감정을... 온전히 서현진 선배 덕

드라마 '사랑의 온도' 마친 양세준

SBS 드라마 '사랑의 온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코 배우 양세준이다. 온정선으로 분한 그는 부드러운 매력으로 인기의 중심에 섰다. 데뷔 2년차의 신예지만 대체로운 필모그래피와 주연 배우로 발돋움한 그의 성장세는 가히 우러러볼 만하다. 본질에 집중해 주어진 것을 행해온 양세준이 걸어갈 길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사랑의 온도’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끝내고 나니 어떤 마음인가요.

“전 작품인 ‘듀얼’을 마치자마자 ‘사랑의 온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촬영을 끝낸 뒤에는 모든 걸 다 털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어요.”

—극 중 온정선은 연애 감정과 치정 싸움, 가정 내 불화로 인한 감정의 결핍 등 다양한 면을 보여야 했어요. 이로 인한 감정적인 피로도 있었을 법한데.

“그렇진 않았어요. 돌아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2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회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때로 집중을 하면, ‘사랑의 온도는 그만큼 집중을 많이 했어요.’

—드라마 시작 전 간담회에서 ‘조금 촬영했는데도 사랑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 마음이 생겼나요.

“중반부쯤에는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움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연애 감정을 느끼고 싶었어요. 연기를 하면서 예전 연애하던 순간들과 그때의 감정이 느껴지기도 했죠. 이런 온전히



드라마 '사랑의 온도'에서 서현진(왼쪽)과 임태출하는 양세준. 사진제공 SBS

3개월 동안 ‘온정선’으로 살아보니 문득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지만 극처럼 첫눈엔 안 반해요 목표 세우는 대신 오늘 열심히...

서현진 선배 덕분이예요. 현진 선배는 상대배우를 캐릭터로서 집중시켜주는 힘이 있거든요.”

—실제 본인의 연애 스타일은요?

“저는 저돌적인 온정선과는 조금 달라요. 첫눈에 반했다는 느낌을 받아도 그 감정을 믿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 해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오래 가져본 뒤, 이 감정이 진짜라고 느껴지는 확신이 오면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1년 만에 주연배우로 성장했어요. 이걸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요.

“돌아보면 저는 주어진 것을 잘 해내자는 신념

하나만으로 계속 해왔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게 계속 이어져온 것 같아요.”

—중학생이었던 어른 같은 성숙한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중학교 3학년 때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영화, 만화책, 소설 등 여러 가지를 꾸준히 봤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오늘 제게 주어진 본질을 생각하고 그걸 잘 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바탕이 돼서 지금도 ‘사랑의 온도’를 할 땐 3개월 동안 온정선으로 살겠다, ‘듀얼’을 할 땐 3-4개월 동안 이성준과 이성훈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며 최대한으로 몰입할 수 있었어요.”

—‘사랑의 온도’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로맨스의 중심에 섰던 작품이에요.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표현과 소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 작품이에요. 연기적인 걸 다 떠나서 인간 양세준으로서 표현과 소통에 대해 일깨워준 지점이랄까? 친구나 부모, 연인처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사극과 메디컬, 복제인간을 다룬 장르물 그리고 로맨스, 필모그래피마다 특징이 도드라지는 작품들을 해왔어요.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계획이나 목표를 잘 세워두지 않는 편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래 산다고 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인물들을 모두 다 접해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연기에 있어 절대로 제한을 두지 않으려 해요. 주어진 것을 열심히, 잘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예슬 기자 yeye@

2007년 쌍절곤 든 영애가, 2017년 장미 든 영애로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 홍보사진(왼쪽)과 시즌16 제작발표회 사이에는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영애씨’를 연기한 김현숙도 29세에서 어느덧 39세가 됐다. 뉴스-고아라 기자 iknow@

더 강력한 그녀가 돌아온다

‘막영애’ 시즌 16...유부녀로 인생 2막 열어

10년째 방영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

대한민국 케이블 드라마의 대모적인 ‘막돼먹은 영애씨’(이하 막영애)가 시즌16으로 돌아온다. 올해로 방영 10년째를 맞은 ‘막영애’는 연애가 아닌 결혼과 임신 등 유부녀로서의 ‘영애’의 삶을 다룬다. 1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2막을 여는 ‘막영애’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4월 tvN 새 월화드라마 ‘막영애’ 시즌16이 첫 방송된다. ‘막돼먹은 영애씨’는 2007년 4월 첫 방송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다. 대한민국 대표 노처녀 ‘이영애’(김현숙 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직장인들의 애환과 여성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담아내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동안 ‘막영애’가 담은 건 말 그대로 ‘노처녀’의 흔하디흔한 일상이었다. 남자를 만나고, 이별하고, 또 만나고, 또 이별한다. 그 가운데 겪는 흔한 대한민국 직장인의 사회생활은 보너스다. 코믹한 상황과 세태 반영을 적절히 버무리며 공감대 형성에 성공한 ‘막영애’는 모두와 함께 자라왔다.

그리고 어느새 10년이다. 10년 동안 강산은 변하고 시청자의 삶도 변했다. 중학생이었던 시청자는 어느새 아이의 엄마가 됐고, 군대에서 ‘막영애’를 보던 시청자는 어느새 삶에 찌든 직장인이 됐다. 그 안에서 ‘막영애’ 속 영애는 계속 도돌이표처럼 연애를 반복했다. 시청자는 변하는데 영애는 그대로였으니, 이에 대한 애정자들의 원성이 이어진 건 당연지사다. 이에 ‘막영애’는 변화를 택했다. 바로 주인공

영애의 결혼이다. ‘작사’(작은 사장)로 활약했던 승준(이승준 분)과 연애를 시작한 그는 지난 시즌에서 임신을 암시하는 듯한 마무리로 새로운 2막의 시작을 알렸다. 뒤이어 새롭게 공개됐던 시즌16의 티저 영상과 포스터에서는 전쟁 같은 결혼을 예고했다. 시월드로 대비되는 시대의 등정으로 또 다른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게 ‘막영애’의 가장 큰 골자다.

최근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을 맡은 정형진 PD는 “매 시즌마다 어떤 새로운 소재로 이야기를 할지가 고민됐다. 이번 시즌은 10년간 노처녀로 있던 영애가 드디어 결혼한다. 유부녀가 된 영애가 새로운 인간관계와 여러 환경에서 느끼는 감정과 정서, 에피소드들을 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이 ‘막영애’가 여는 새로운 장이 될 전망이다.

주인공 영애 역의 김현숙은 “시즌15에서 욕을 많이 먹었다. 공감대 있던 ‘막영애’인데 평범한 여자에게 꽃미남과의 삼각관계가 말이 안 된다는 말도 있었고, 시집갈 때도 됐는데 억지로 끈다는 댓글도 있었다”면서 “결혼이라는 변화 앞에서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들의 말처럼 10년간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온 ‘막영애’에게 영애의 결혼은 분명 큰 도전이다. 한편으로는 장수드라마 ‘막영애’가 풀어야 할 숙제기도 하다. 현실성 가득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영애가 겪는 변화 또한 지독하리만치 현실이다. 40대인 영애가 결혼으로 새 삶에 진입하는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는 대목이다.

김예슬 기자 yeye@

인터넷방송에서 올해 화제의 예능으로

‘김생민의 영수증’ 60분 정규편성 “그레이트!”

일요일 ‘서프라이즈’에 시청률 안 밀려 심층분석과 새 코너 ‘출장영수증’ 신설

시작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한 코너였다. 가랑비에 옷 젖듯 점차 인기를 얻었다.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독립한 후에는 전체 팟캐스트 청취수 1위까지 차지했다. 다음은 지성과 입성이었다. 1회 15분, 6부 분량의 임시 편성이었지만 성원은 열화와 같았다. 방송국 총과업 기간에도 2회 연장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끝내 60분 정규 편성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가히 2017년 최고 화제의 예능 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이하 영수증) 이야기다.

‘영수증’의 파란만장한 편성사는 진행자인 김생민의 방송 인생과도 닮아 있다. 뚜렷한 ‘한 방’ 없이 가늘고 길게, 하지만 꾸준히 활동해 온 김생민은 데뷔 25년 만에 첫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인간 김생민의 절약 노하우와 연예인 김생민의 방송 노하우를 집대성해 보여줬다. 늘 힘주어 말하던 ‘철실함’은 대중의 응답으로 결실을 맺었다.

지난달 26일, ‘영수증’은 정규 편성 후 첫 회를 선보였다.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많은 사람들이 늦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입을 모아 “영수증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는 고백을 쏟아냈다. 이쯤 되면 공익방송이라고 불려도 좋을 듯싶다.

사실 스튜디오 예능으로 60분 분량은 버겁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70분으로 특별 편성된 이날 방송은 외려 15분 방송에서는 채 담을 수 없던 영수증 심층분석과 새 코너들로 가득 찼다.

포문을 연 것은 시청자들의 애정 어린 절약 후 기였다. 앞서 김생민이 언급했던 절약 방식들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공개됐다. 소화제 가격을 아끼기 위해 단체로 점프하는 모습, ‘영수증’의 슬로건인 ‘돈은 안 쓰는 것이다’로 가운을 교체했다는 사연들이었다.

의뢰인의 영수증을 분석할 때는 김생민과 함께한 김숙, 송은이의 활짝 호흡이 빛났다. 15분 분량일 적에는 편집될 수밖에 없던 차진 멘트들이 프로그램의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 신설된 코너 ‘출장영수증’을 통해서도 연예인들의 영수증 자문으로 흥미를 끌었다. 이른바 ‘간절함’이 있는 연예인 친구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 목록과 소비패턴을 분석해 경제 자문을 해주는 ‘영수증 과학수사시대’의 활약을 신선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첫 방송 시청률은 4.8%, 일요일 아침 전통의 강호 MBC ‘서프라이즈’에도 밀리지 않는 성적이다. 심지어는 수요일 재방송이 동시간대 방송된 SBS ‘내 방 안에서의 정규 방송 시청률’을 꺾을 정도다. 국민 통장요정으로 거듭난 김생민과 그에게 전성기를 안겨 준 ‘영수증’, 그 기적의 신화는 꼭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호진 기자 thebestsurplus@

실패만 했으니 남은 건 성공뿐이라는 믿음으로

골프아카데미 荒蕪地였던 국내 시장 개척

(황무지)



윤홍범 JNGK 대표이사

“무조건 'Do or Die(해내거나 죽거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실패는 했으니 남은 것은 성공뿐이라고 믿은 거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면 반드시 꿈은 이루진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골프아카데미가 생소하던 시기에 미국의 골프전설 '골든베어' 잭 니클라우스(77)의 골프아카데미를 인수해 성공시킨 윤홍범(53) JNGK 대표이사.

그가 황무지였던 국내 시장에서 아카데미를 어떻게 성공시켰을까. 유복한 가정에서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법학을 전공한 뒤 금융회사에서 주로 근무했다. 첫 직장이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이었다. 잘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다. 그런데 망했다. 다시 직장을 구한 곳은 산은캐피탈이었다. 잠깐이나 싶었는데 퇴직하고 사업에 또 손을 댔다. 그리고 또 망했다. 그는 전자구매대행,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외국에서 심층수 수입, 컴퓨터 등 사업 분야가 다양했지만 모두 실패를 맛봤다.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자문을 하는 것이 전문이었던 그가 다시 찾은 곳은 매크로에셋. 이곳에서도 근무할 때 잭 니클라우스와 인연이 닿았다. JNGK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 계기였다. 잭니클라우스의 니네임으로 골든베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엔젤펀드를 조성했다. 그리고 바로 인수 작업을 끝냈다.

“사실 골프아카데미로 수익을 낸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1999년 설립된 이 회사의 속내를 들여다보니 문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빚만 있고 수익모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죠.”

미국에서 파견한 프로골퍼 교습가 2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났다. 숙소와 차량 등을 비롯해 통역까지 붙였는데 아카데미의 '돈벌이'는 신통치가 없었다. 국내 연습장에는 대부분 기존 프로들이 개인레슨 위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습장을 임대해 특정 아카데미로 일반 골퍼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다.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이 필요했다. 여기에 통일된 교습이었다. 특히 교습가가 골퍼들에게 예절을 갖추면서 즐겁고, 재미있고, 친절하고, 알기 쉽게 레슨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재에 우리 특성에 맞게끔 교재를 새로 제작했다. 그리고 교습가들끼리 1주일에 한 번씩 토론을 벌였다. 서로의 장점을 따와 교습을 하자는 취지였다. JNGK는 잘 가르치는 전문 프로들의 양성을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80여 명



美 '잭 니클라우스 골프아카데미' 인수 세계 공통 교재에 한국 특성 맞춰 고객 신뢰할 수 있는 과학시스템도 적용 프로·아마추어대회 年 20회 이상 운영 SBS골프채널 DIY 스윙 등 방송 제작

의 소속 인스트럭터들은 매년 미국본사 기술 디렉터로부터 선진 티칭법을 교육받고 있다. 이는 골프 아카데미를 찾는 회원들에게 수준 높은 레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실패만 맛봤잖아요. 그런데 JNG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화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닌 일대 혁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뒤 위촉된 직원들의 '기(氣)'를 살려주려고 워크숍을 가졌다. '송판' 자르기를 했다. 송판에다가 자신의 단점을 모두 쓴 뒤 손으로 내리쳐 부순 뒤 휘휘 타는 숯불 위를 걸어가는 고행(?)을 한 것. 놀랍게도 한 사람도 발이 숯불에 데지 않았다.

워크숍을 마친 뒤 그는 '실패'라는 작은 글자로 '성공'이라는 큰 단어를 만들어 액자에 담아 자신뿐 아니라 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액자 속에 담은 글 중에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라고 쓰여진 글이 눈에 띄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미국)을 좋아한다. 에디슨이 남긴 명언 중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가슴에 안고 산다. 또 '인생에서 실패한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가까이 두고도 이를 모른 채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명구도 머릿속에 남아 있다.

“아카데미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연습장 운영과 대회까지 손을 댈 것이죠. 어차피 아카데미는 연습장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지금도 가슴이 뛰는 것은 2013년 대기업과 경쟁해서 수원월드컵 경기장의 스포츠센터를 따낸 것입니다.”

하루에 4000명이 입장하는 수원월드컵 스포츠센터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스쿼시 등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갖고 있어 '유윤(YOU 潤)'으로 이름을 지었다. 이는 '당신의 몸을 빛나게,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JNGK는 2003년 신축한 위커텔골프센터에 아카데미 문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 뒤 대전 까르푸에 메타드 드라이빙 레인지를, 수원월드컵에 이어 세종시의 유일한 골프연습장인 세종필드골프센터도 문을 열었다.

JNGK는 오랜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와 아마추어 대화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이 주최하는 다양한 골프대회를 연간 20회 이상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에 골프 관련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SBS골프채널에 DIY 스윙과 JTBC골프채널과 올댓스윙 시즌4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홍범 대표는 1990년에 설립한 한국골프연습장협회 7대 회장을 맡아 그동안 부실했던 협회를 정상화하는 데 이어 최근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와 함께 KPGA 연습장 인증사업도 하고 있다.

그는 볼도 잘 친다. 1996년에 골프에 입문해 2012년 경기 용인의 화산컨트리클럽에서 이븐파 72타를 친 것이 베스트스코어다.

“앞으로의 목표요? 전국에 100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아카데미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까지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룰 겁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다운스윙 땀 오른팔을 몸에 붙여라



많은 골퍼들이 다운스윙 동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회전을 높이기 위해 다운스윙 때 팔과 몸의 간격이 끝까지 유지돼야 하는데 하체를 쓰지 않고 상체 위주로 스윙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체와 팔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잘못된 동작과 같이 팔이 몸과 멀어지게 되면 헤드와 샤프트의 접합 부분에 맞아 엉뚱하게 날아가는 것이죠. 헤드와 샤프트의 접합 부분이 맞아 엉뚱하게 날아가는 것이죠. 헤드와 샤프트의 접합 부분이 맞아 엉뚱하게 날아가는 것이죠. 헤드와 샤프트의 접합 부분이 맞아 엉뚱하게 날아가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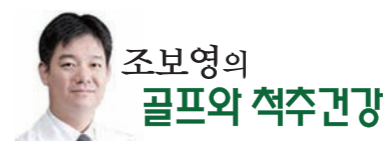
몸의 회전이 약하면 사진 오른쪽 동작처럼 팔이 몸과 멀어지며 헤드가 옆으로 타점이 정확하지 못하게 된다. 왼쪽 골반을 빼준다는 느낌으로 왼팔을 최대한 몸 쪽에 붙여야 올바른 다운스윙 모습이 나온다.

몸이 편하게만 움직이면 팔을 몸과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편하지만 회전력을 키우기 위해선 최대한 몸과 가깝게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하체의 움직임이 있어야만 팔을 몸에 붙여 질 수 있게 됩니다. 왼쪽 골반을 뒤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임을 주면서 오른쪽 팔꿈치는 배꼽 위에 그리고 왼팔 거드랑이를 최대한 몸 쪽에 붙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익혀 주도록 합니다. 이 같은 느낌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올바른 자세와 같은 다운스윙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레야 몸을 기준으로 클럽이 회전하며 볼을 맞추게 되고 스피드가 늘어 비거리를 늘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몸에 먼저 동작을 익힌 후에 볼을 치는데, 실제 스윙하기 전 이러한 동작을 몇 번의 허준 다음 스윙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샤프트 스틱이나 헤드 커버를 볼 위쪽에 놓고 스윙하도록 합니다. 몸에서 떨어지는 다운스윙이 나올 경우 볼과 함께 커버 혹은 스틱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물건을 건드리지 않도록 긴장하며 스윙을 몇 번 하게 되면 몸과 떨어지지 않는 스윙을 하게 됩니다. 반복동작과 연습을 하면 회전력을 높이는 다운스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 筋力 강화해야 '골프노화' 예방



얼마 전 지인과 라운딩 도중 '골프노화'라는 단어가 화제가 됐다. 50세가 넘으면서 한 해 두 해 나이가 쌓일 때마다 비거리가 5-10m씩은 줄어든다는 한탄 끝에 나온 말이다. 30, 40대만 하더라도 웬만한 파4홀에서 투온을 시켜온 싱글 골퍼들도 50대가 되면 급격하게 비거리가 줄어 핸디캡 유지에 애를 먹는다. 이 유야 많겠지만 허리 근력 약화로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비거리를 늘리는 좋은 스윙은 건강한 척추에서 나온다. 골프 스윙 자체가 척추가 꼬였다가 풀어지는 힘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척추는 목뼈에서 꼬리뼈까지 모두 34개의 뼈다. 안정적인 척추는 그 뼈다리를 지탱하는 인대와 근육이 얼마만큼 건강인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척추 주위를 감싸는 근육과 인대가 튼튼하다는 말은 곧 '허리가 튼튼하다'는 말이다.

12월에 접어들면 각종 골프모임이 남회를 마치고 골프 휴식에 들어간다. 골퍼들은 다시 봄이 올 때까지 아쉬움을 달래며 기다려야 한다. 내년 봄, 멋진 샷을 날리려면 긴 겨울 동안 반드시 하체와 허리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엉덩이, 허리를 유연하게 강화시키는 운동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TV를 보면서 하루 10분 이상씩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먼저, 균형 잡기다. 허리를 곧게 유지하면서 왼팔, 오른 다리를 교차되게 올려서 6초간 유지하고 양쪽을 교대로 실시한다. 엉덩이와 대퇴부 근력 강화 효과와 함께 목과 등 근육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누워서 엉덩이 들어올리기다. 손을 바닥에 붙이고 무릎을 세운 후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올려 6초간 유지한다. 몸통과 다리가 일자가 되도록 유



지하고 아랫배는 내밀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 상체 들어올리기는 바닥에 배를 붙이고 엎드린 후 양손은 바닥을 향하게 하여 가슴 옆에 대고 서서히 팔을 펴면서 상체를 들어올린다. 시선은 정면, 팔과 어깨는 가급적 90도를 유지하고 허리에 힘을 뺀다.

네 번째, 엎드려 팔다리를 들어올리는 배를 바닥에 대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도록 하여 엎드린다. 양쪽 팔을 쭉 뻗어 들어올린 자세에서 고개를 조금 들어 6초간 유지한다. 이후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쭉 뻗은 채로 들어올려 6초간 유지한다. 숙달이 되었다면 양쪽 팔과 한쪽 다리를 쭉 올린 상태로 4초간 유지한다.

마지막은 고양이 자세다. 엎드린 상태에서 등을 구부려 6초간 유지하고 반대로 허리를 아래로 내려서 6초간 유지한다. 허리와 척추 앞쪽 근육, 엉덩이, 목과 어깨의 근육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허리 유연성과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중장년층 골퍼들은 꼭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허리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지면 비단 한두 해 지나며 비거리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허리 회전에도 제한, 근육과 인대 손상이 쉽게 일어나 디스크나 만성 허리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세바른병원 원장

KLPGA, 4개국 대항전 '더퀸즈' 2연패 도전

日 미요시CC서 오늘부터 3일간 열려 김하늘·이정은 6 등 최강 드림팀 구성

한국이 2연패를 달성할 것인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4개 투어 대항전 더퀸즈 프리젠티드 바이 코와가 1일 일본 아이치현의 미요시 컨트리클럽(파72·6400야드)에서 개막해 3일간 열린다.

2015년부터 열린 더퀸즈 1회 대회에서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가, 지난해에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우승을 차지했다. 4개 투어의 자존심을 건 우승 트로피의 향방에 올해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KLPGA투어에서는 캡틴 김하늘(29·하이트진로)을 필두로 이정은(61·토니모리), 김지현(26·한화), 오지현(21·KB금융그룹), 고진영(22·하이트진로) 등 올 시즌 국내투어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모두 출전한다.

더퀸즈 출전 선수 9명 중 7명이 지난해 같은 경기 방식(포볼, 포식, 싱글 매치플레이)으로 열린 ING생명 챔피언스트로피에서 LPGA투어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

두며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세계랭킹에서도 KLPGA투어가 우위에 있다. 다만,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가 6명인 KLPGA투어에 비해 JLPGA투어에서는 6명의 선수가 출전 경험을 가지고 있어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상금왕 스즈키 아이(23)와 우에다 모모코(31), 류리츠코(30) 등의 최강 드림팀을 꾸리며 우승컵 탈환을 노리고 있다.

호주여자프로골프(ALPG)에서는 베테랑 선수인 카리 웹(43)이 출전해 첫 우승의 불씨를 남겼다. ALPG는 3년 연속 출전하는 선수가 총 6명(KLPGA 2명, JLPGA 1명)으로 4개 투어 중 가장 많다.

2년 연속 3위에 머물렀던 유럽여자프로골프(LET) 또한 캡틴 글라디노세라(42)를 선봉으로 멜리사 리드(30), 플로렌티나 파커(28) 등이 출전해 첫 우승을 노린다. 출전팀의 평균연령은 한국팀이 24세로 가장 낮다. 일본팀이 26.8세, 유럽팀이 29.22세, 호주팀이 32.22세로 가장 많다.

경기 방식은 1라운드 포볼 매치플레이, 2라운드 싱글 매치플레이, 최종라운드 포식 매치플레이로 펼쳐지며



지난달 30일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미요시CC에서 열린 'THE QUEENS presented by KOWA' 공식 포토콜에서 KLPGA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KLPGA

최종라운드에서 우승팀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최대 2회까지 플레이오프를 실시한다.

SBS골프는 2일 2라운드 낮 12시부터 생중계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BIG BANG Class 가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정타 설계기술력 - **뱅**

최대 **50yd** 더 나가는

역사상 세계 **최경량** + **극초고반발** 드라이버 개발

가벼워서 쉽고 편하게, 스윙스피드 증가

골프클럽 3大 기술 : 고반발 기술 (비거리), 경량화 기술 (쉽고 편한 스윙), 최적화 기술 (방향성)

세계 최고의 설계기술

일반 드라이버 보다 $\frac{1}{3}$ 더 가벼워진 무게부터 ~ 120 종류의 무게로 클럽선택의 새로운 패러다임



BIG BANG Longdistance *Light* PLUS

슬라이스가 없는 4세대 신기술 +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209g ~ 최고 320g까지 120단계의 드라이버 무게 중에서 최적화 드라이버 선택 = +50yd
종전 절반의 무게감 C.O.R 0.925 >> 0.930 >> 0.962 일반골퍼들에게 세계 톱 프로선수의 클럽 선택 프로세스와 같은 클럽피팅 서비스

(주)뱅골프코리아 대표전화 : 1544-8070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다르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Made in Japan & Fitting in Korea www.banggolf.co.kr

오늘부터 셀트리온헬스케어·신라젠 'MSCI 지수 편입' 주춤한 '바이오株'에 영양제될까

外人, 셀트리온헬스 1045억·신라젠 1133억 순매수... 상승 동력 기대

코스닥 상승밸리를 이끈 대형 바이오 주들이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으로 다시 날개를 펼치 주목된다. 증권가는 주도주의 활약을 등에 업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신라젠, ING생명명은 1일부로 MSCI 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됐다.

MSCI지수 편입의 기대감은 주가에 즉각 반영됐다. 앞서 MSCI가 신규 편입 종목을 발표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신라젠은 종가 기준 37.09% 급등했다. 20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셀트리온헬스케어도 30.15% 훌쩍 뛰어올랐다. 특히 편입 전날인 30일, 신라젠은 전 거래일보다 12.76% 상승한 11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줄줄이 하락한 가운데 나홀로 급등이다.

같은달 28일 14.93% 급락하며 9만2300원

까지 떨어졌던 신라젠은 2거래일 만에 주가 10만 원대를 회복했다.

외국인은 이들 대형 바이오주에 거침없이 손을 뻗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를 1045억 원어치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신라젠도 1133억 원 사들였다. 30일 하루 동안에도 외국인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신라젠을 각각 550억 원, 478억 원어치를 쏟아냈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MSCI지수 정기변경은 편입 대상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을 유발한다"면서 "단기적으로 좋은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신라젠의 온기가 업종 전반으로 퍼질지 여부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800선 돌파의 1등공신이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며 조정을 겪고 있다. 30일 역시 신라젠을 제외한 △셀트리온



경징계로 숨 돌린 미래에셋대우 '超大型 IB사업 제2호' 청신호

'기관주의'로 끝나며 '발행어음 인가' 걸림돌 해소... KB證은 '기관경고' 먹구름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미래에셋대우가 사실상 '초대형 IB 제2호' 타이틀을 거머쥘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경징계' 수준인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막았던 제재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열린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 관련 임직원은 정지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

금융원은 미래에셋대우가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유로에셋 옵션상품 투자자 중 상당수가 미래에셋대우 고객으로, 이들은 3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관주의 조치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의 자기가

본 규모는 7조2000억 원 수준으로,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많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경우, 자본금의 두 배인 14조 원 이상의 자금이 발행어음을 통해 혁신벤처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여서 추후 금융원장 결정 또는 금융위원회 부의의 통해 제재 수위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은 증권사가 현재 한국투자증권뿐이어서, 초대형 IB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재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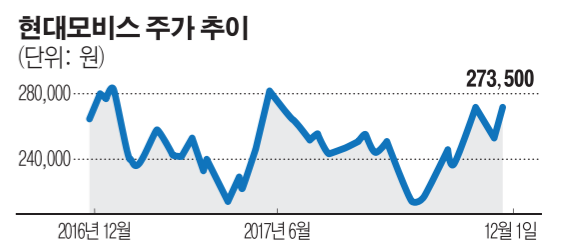
반면, KB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또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에 대한 중징계가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차민영 기자 blooming@

'지주사 전환' 好材 올라 탄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연내 개편된 기업가치 확대



증시에서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밑그림과 의지'를 보여달라며 12월로 데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서다. 현대자동차의 연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 재편 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는 4개의 순환출자 구조가 존재하며 핵심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지분관계다. 이들은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어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율로 핵심 기업들을 지배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현대차의 주요주주는 △현대모비스(20.8%) △정몽구 현대차 회장(5.2%) △정 의선 현대차 부회장(2.3%) 등이다. 기아차의 주요주주는 △현대차(33.9%) △정의선 부회장(1.7%), 현대모비스의 주요주주는 △기아차(16.9%) △정몽구 회장(7.0%) △현대글로비스(0.7%)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 이슈는 기아차가 보유한 모비스 순환출자 지분(16.9%)의 해소다.

증시에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의 인적 분할 후 지주사 합병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제기된

다. 향후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추진과 현대글로벌비즈 지분의 현물출자 등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시나리오는 분할·합병 관련 주주총회 특별 결의라는 hurdles이 존재한다. 강화된 스튜어디스 코드도 감안할 때 이 같은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 인적분할 후 지주사 전환, 지주사 전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정리를 통한 순환출자 해소가 거론된다.

증시에선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 개선인 현대모비스가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 분석이 제기된다. 남정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3사 분할 합병시는 지분가치 및 사업가치 재평가에 따른 기업가치 확대가 예상돼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의 경우도 대주주 지분을 확대에 따른 수혜와 배당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미정 기자 mjik@

삼성전자 투자심리 급랭... 外人 9000억 순매도

이주의 수급동향

코스피 IT업종 중심으로 1조3647억 '팔자'

코스피시장 외국인 상위 순매도 종목 (단위: 억 원)

순위	종목명	금액	순위	종목명	금액
1위	삼성전자	-8,935	6위	삼성전자우	-394
2위	SK하이닉스	-903	7위	삼성SDI	-363
3위	카카오	-693	8위	LG이노텍	-356
4위	현대모비스	-591	9위	이마트	-283
5위	삼성바이오로직스	-396	10위	롯데쇼핑	-267

코스피시장 투자자별 수급동향

구분	수급액 (억 원)
개인	1,945
기관	7,144
외국인	-13,638

(단위: 억 원)
* 기간: 11월 27~30일

이번 주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대장주'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등, IT(정보기술)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 1조3647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23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특히 30일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5892억 원에 달해 2014년 12월 11일(7072억 원)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컸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한 주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는 8935억 원에 달했다. 이어 외국인은 △SK하이닉스(-903억 원) △카카오(-693억 원) △현대모비스(-591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396억 원) 순으로 많이 팔았다.

주 초반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30일에는 미국 증시의 기술주가 급락하는 이벤트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IT주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렬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익 성장 속도가 줄어든 수밖에 없어 반도체 경기 전망이 후퇴했다"라고 설명했다.

한 주간 외국인이 순매도 행진을 벌이는 사이 기

관 코스피 시장에서 7144억 원을 순매수했다. 많이 팔았던 종목은 SK하이닉스(2371억 원), 넷마블 게임즈(444억 원), 삼성전자우(422억 원), 카카오(-198억 원), LG전자(-164억 원) 등으로, 외국인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그간 삼성전자와 IT라는 특정 섹터에 몰려 있던 유동성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내외적 자금 흐름을 보면 시장이 꺼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전기 전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 시장의 수급에 충격은 있었지만 철강, 운송장비, 유틸리티, 은행 등은 매수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2932호 (2016.06.03~2017.06.02)

KYOBO 교보증권

교보증권 체크카드와 함께하는 건전한 소비습관의 시작

SSG.COM LOTTE.COM

모두모아 체크카드

혜택의 크기가 다른!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 체크카드

전 가맹점 0.5% 캐시백을? 모두모아 체크카드

모두모아 체크카드 서비스

캐시백 전 가맹점 0.5% 캐시백(이용한도 내 적용)
※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적용
※ 상세 서비스 내용 및 할인 기준 등 교보증권 홈페이지 참조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 체크카드 서비스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최대 1천원당 1마일)
온라인몰 온라인몰 5% 할인(SSG,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 제세공과금, 상품권 구매액은 제외됩니다.
외식 점심 11시~14시 음식점 10% 청구할인
커피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10% 청구 할인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10% 청구 할인
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10% 청구 할인
통신요금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스포츠 프로야구, 축구, 농구, 배구 예매 20% 할인

※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적용
※ 상세 서비스 내용 및 할인 기준, 한도 등 교보증권 홈페이지 참조

서비스 제공 조건

전월 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내 가맹점에서의 이용금액을 의미하며 전월 실적 산정 시 5개 온라인몰(SSG닷컴,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몰), 제세공과금, 상품권 구매액은 제외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비씨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기준을 따릅니다.
카드 수령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는 카드이용실적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됩니다.

고객센터 1544-0900 | 카드문의 1566-2224 | 홈페이지 www.iprovest.com

※ CMA입금액은 RP에 투자되며, RP는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 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관련 상세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www.iprovest.com)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골든센츄리, 上場후 '分期 최대 매출'

(중국 중대형 트랙터용 휠·타이어 제조) (작년 10월 코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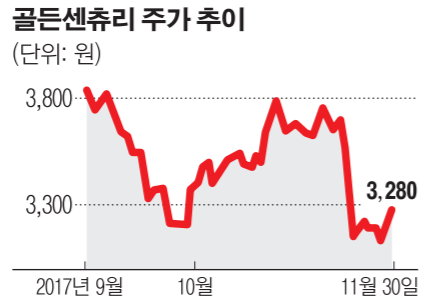
3분기 265억 작년보다 9.7%↑ 中 정부 첨단 농업정책 수혜 美 등 해외 진출도 적극 모색

중국 중대형 트랙터용 휠, 타이어 제조기업 골든센츄리가 중국 정부의 농업 현대화 정책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으며, 올해 3분기에 사상 이후 최대 분기 매출액을 달성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골든센츄리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65억 원, 영업이익 71억 원, 당기순이익 5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7%, 17.2%, 28.4% 증가한 규모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73억 원, 198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6%, 14.6%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골든센츄리는 "중국 내 대형 트랙터 시장이 커지는 추세에 맞춰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장 이후 최근 분기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 칼스타 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코스닥에 상장한 골든센



츄리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첨단 농업 굴기 정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농민의 거주환경 개선, 생태 농촌 역량 증대, 생산능력 강화 등을 위해 2015년 '농업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계획'이라는 15년 장기 계획을 내놨다. 또 최근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농업 기계화율을 현재의 63%에서 7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농기계의 첨단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춰 중국 유일의 중대형 트랙터용 휠과 타이어를 제조하는 골든센츄리가 개화기를 맞이한 것이다.

골든센츄리는 중국 트랙터 시장점유율 1위 제일트랙터를 비롯해 상주동풍, 강소위드, 산둥시퉁 등 중국 내 메이저 농기계 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칼스타 그룹(Carlstar Group LLC)과 농업용 트랙터 휠 제품

49종을 생산해 미국시장에서 시장성 테스트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약 681억 원을 투자한 양주 신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양주 신공장의 계획 생산 능력은 136만8000개로 현재 68만4000개의 두 배 규모다. 공장이 완공되면 수출 물량과 양주 주변 고객사 물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최종경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 리포트를 통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농업 장려 정책, 농업용 트랙터의 대형화 추세, 탈농촌화에 따른 1인당 경작면적 증가, 농업협동조합 확대 등 골든센츄리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공장 증설 이후 생산능력이 증대돼 신규물량 대응 및 장기 성장 기반 확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세계 첫 개발 '다중암진단키트' 피씨엘, 내년 1분기 판매 돌입

공강 추가로 짓고 유통채널 확보 간암 등 5종 1시간 안에 진단

피씨엘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다중암 진단키트가 내년 1분기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 추가 공장을 마련했고, 생산인력도 확충 중이다. 유통채널까지 확보해 마무리 작업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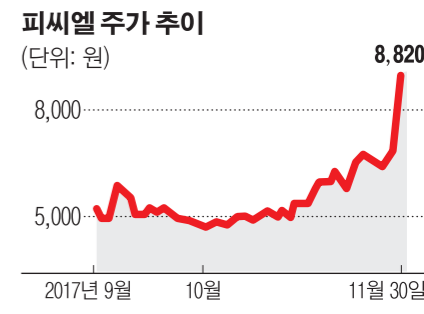
1일 피씨엘 관계자는 "다중암진단키트 Ci-5가 임상 단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유럽 및 국내 식약처 인증 허가가 진행 중"이라며 "국내의 경우 1~2달 이내에 정식 보고서가 나와 허가받을 것으로 본다. 시차를 감안해 내년 1분기 내 국내 및 해외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연 500만기 정도 생산 가능하지만 최근 송파 쪽에 공간을 새로 마련했다. 추가 연구시설 및 클린룸을 지어 추가 생산에 대비 중"이라며 "생산 인력도 새로 뽑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씨엘은 2008년 번역진단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의 사업 목적으로 설립됐다. 올해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주력 제품은 에이즈, C형 간염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HI3-1 제품이다. 세계 최초로 피씨엘이 개발한 것으로 유럽의료기기(CE) 인증을 획득해 현재 대 한적십자 혈액원 키트 공급 입찰 준비 중이다.

이 회사가 내년 1분기 새로 내놓는 제



품은 Ci-5 다중암진단키트다. 간암과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5종류의 암을 1시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피씨엘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제품은 혈액 속에 있는 특정 질병의 바이오마커를 고정화시킬 수 있는 피씨엘의 원천 플랫폼 'SG Cap'을 이용했다. 최대 64개 질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어 글로벌 제약사 루미넥스(Luminex)의 10가지 진단 기술보다 효율성이 높다. 이 플랫폼도 현재 브라질,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의 업체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CJ와 유통과 관련해 협약을 맺었고, 대만 전체를 비롯해 해외 다수의 디스트리뷰터를 활용하게 된다"면서 "Ci-5는 당시의 원천기술을 이용해 단백질 마커 사용 비중이 굉장히 적다. 원가절감이 가능해서 가격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금성호흡기 감염병의 항원 기반 현장용 다중질병 진단키트 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 과제로도 선정됐다. 남주현 기자 jooh@

메지온, 폰탄수술 치료제 임상3상 '척척'

환자 모집 年内 마무리될 듯 내년 하반기 신약 허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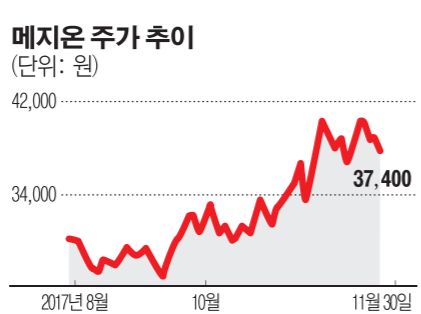
의학·약학 연구개발기업 메지온이 개발 중인 폰탄수술 환자 치료제의 환자 모집을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로써 메지온은 임상3상의 장으로 여겨졌던 시험 대상 확보 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임상을 최종 완료할 수 있는 기분이 마려왔다.

1일 메지온은 폰탄수술 환자 치료제 임상3상 환자 모집의 80%를 진행해 연말께 모집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으로 분류되는 폰탄수술 환자의 임상3상의 경우 환자 모집에서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지온 관계자는 "환자 모집이 연내 마무리될 경우 내년 여름께 임상을 끝내고, 이어 하반기 신약 허가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폰탄수술은 서서히 흐르는 낮은 압력의 정맥피가 폐동맥으로 흘러들어 가게 해 주는 수술로 환자가 적은 희귀질환에 속한다.

메지온은 아직 정식 병명도 없는 질환에 '단심실심장병'(SVHD·Single Ventricle Heart Disease)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관련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메지온에 따르면 미국의 SVHD 환자는 3만 명으로 추산된다. 폰탄수술 환자의 연간 약가는 4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분의 1인 1만 명이 폰탄 수술 치료제를 처방받는다. 가장 저렴한 단순 계산으로 연간 4억 달러(약 46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고 회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메지온은 2002년 9월 25일 의약품 제조업과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동아제약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 개발한 신약물질인 유데나필(Udenafil)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지역에서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 ED), 전립선비대증(Benign Prostate Hyperplasia, BPH) 및 단심실증환자(SVHD, Single Ventricle Heart Disease) 치료제(일명 폰탄수술환자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식품 손떼고 '2차전지'... 상호도 '더블유에프엠'으로 변경 多 바꾼 '에이원엔' 주가 右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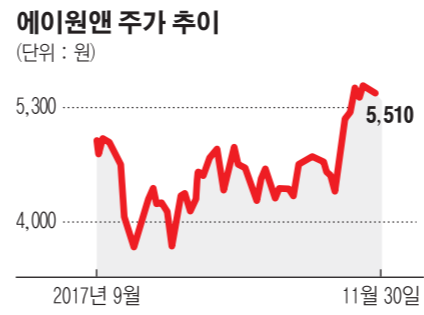
주춤하던 에이원엔 주가가 회복세다. 2차전지 음극재 사업 진출과 상호 변경에 추진력을 얻은 모습이다. 반짝 상승에 그칠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이원엔 주가는 오름세다. 최근 7거래일 동안 오른 날은 5일에 달한다. 일주일 전 4300원대였던 주가는 일주일 새 5600원을 노크하고 있다.

에이원엔은 1994년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 교육용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99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최대주주가 박춘규 구 3명에서 우국환 외 3명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찾아온다. 신사업으로 식품 사업에 뛰어들 것. 쌀눈조아에프앤비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국내외 유통을 담당한다. 이듬해 10월에는 상호도 에듀박스에서 에이원엔으로 변경한다. 하지만 실적은 좋지 못했다. 2015년 매출 222억 원을 거둬 직전 해에 비해 25%가량 줄었다. 지난해에는 매출 159억 원으로 또다시 30%가량 감소했다.

최근에는 또다시 변신을 꾀한다. 올해 5월 취득했던 엠푸드에스엔시 지분 100%를 4개월 만에 되팔고, 우 대표는



사모투자회사(PE)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보유주식 470만 주를 235억 원에 매각하며 경영권 이전 절차를 밟는다.

지난달 15일에는 상호도 바꾼다. 에이원엔의 새로운 이름은 더블유에프엠이었다. 회사 측은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상호변경"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 회사는 임시주총을 통해triangle 2차전지 배터리의 음극소재 상품 제조 △인공지능 상거래를 통한 상품 매매 △창고업 △운송기기 제조업 △정 보통신 기기 제조업 등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출신 사외 이사로 선임하는 등 인력도 보강한다.

에이원엔은 2차전지 음극재 공장을 연내 착공해 내년께 2차전지 배터리 소재 회사로 변신한다는 계획이다. 남주현 기자 jooh@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7년 12월 1일, 08:00, KST)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등락
대시	924,750원	147,050원 (18.9%▲)	비트코인캐시	1,621,750원	77,250원 (5.0%▲)
라이트코인	105,000원	8,000원 (8.2%▲)	모네로	211,800원	18,800원 (9.7%▲)
이더리움 클래식	31,605원	2,415원 (8.3%▲)	제트캐시	367,300원	12,300원 (3.5%▲)
리플	282.5원	11원 (3.9%▲)	퀀텀	14,340원	420원 (3.0%▲)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돈만 있으면 노후준비 다 된 것일까?

PART1. 돈에서 자유롭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PART2. 돈보다는 내 삶의 방향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 먼저다
PART3.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 돈 말고 꼭 있어야 할 것들
PART4. 알뜰하게 기부하는 사람들 - 후반기 인생 연산의 미학
PART5. 내가 기획한 대로 사는 삶, 역만장자도 부럽지 않다

특별초대석

이아령 전 문화부장관

이아령 전 문화부장관은 언제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이다. 이 시대의 멘토,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기억장치, 외장하다. 어제 만났더라도 오늘 다시 만나면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가 생선다. 그사이 언제 이런 걸 새로 걸어 올랐을까 싶을 정도로 그에게는 늘 말이 차고 넘친다. 모든 사회적 자리에서 은퇴를 선언한 뒤 지금은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직만 유지하고 있는 그를 만나 세(인공지능)와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문명과 시니어 세대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제2직업

은퇴 후 인생, 드론과 함께 하늘에 맡겨볼까?

택시운전사를 선택하던 시대가 있었다. 차량의 증가를 운전자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던 시절. 그때만 해도 운전면허증은 우월함의 상징이었다. 미래에도 그런 시대가 올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바로 최근 유행하는 드론 얘기다. 이제 드론은 사람을 나르고, 농기기로 쓰고, 짐을 배달하고, 군사용으로도 쓰인다.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을 보면 자동차 문화가 시작되던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자동차도 처음 나왔을 땐 지금의 용도를 상상하지 못했다. 드론도 그렇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내 인생을 위해 노래하다 아모르파티 가수 김연자	 '비보' 같은 사람 이야기를 쓰고 싶다 작가 김영철, 고독한 남자의 삶을 말한다	 2005년 9월 2일 DMZ박물관에서 우리 만나! 천체 사진작가가 된 前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영희씨
-----------------------------------	---	---

호로록, 따뜻한 우동에 꼭 빠져볼까요?

호로록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차갑게 얼어 있던 몸을 녹여준다. 면을 힘껏 빨아올리자 국물이 얼굴을 때린다. 조금 툇 국물이 대수인가. 통통한 면발을 한입 오물거리다가 삼키면 그저 행복할 뿐이다. 꿀깃하고 깔끔한 우동을 맛보고 싶다면 '카렌'을 추천한다.

12월의 맛

이봉규 心治 데이트

'발레의 히스남'에게 붙잡혔다! 광주시립발레단장 최태지

국립발레단장을 맡고 변방의 한국 발레를 르네상스 시대로 이끈 최태지의 업적과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이 중첩되어 한량 이봉규는 살짝 주눅이 들었다. 한국의 대표 발레리나 최태지와 올해 마지막 데이트를 했다.

동년기자의 페이지

김수영·김영철·김종영·박애란·육영애·정원일·조용래
베틀에 대하여...

부치지 못한 편지

김영철 연세대 명예교수
하늘나라에도 우체통이 있어요?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18.9cm 슬림
주방 가구와 딱 맞는다.
라인이 산다.



LG 디오스
프리미엄 그대로
18.9cm 슬림한
세미투트인
그래서
라인이 산다
분위기가 산다
여유가 산다
공간이 산다

18.9cm 슬림한 깊이로 주방 공간을 더 분위기 있게 | 정수필터 외부 설치로 내부 공간을 더 여유 있게 | 매직스페이스로 수납 공간을 더 프리미엄 하게
*18.9cm는 자사 양문형 800L급 제품 대비 깊이 차이만을 의미하며, 실제 설치 및 사용 환경에 따라 여유 면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LG DIOS 세미투트인 LG DIOS 얼음정수기냉장고